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 문화콘텐츠 활용프로그램

10-1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마을의 역사와 민속생활 중심의 문화자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마을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체를 박물관 개념으로 보존, 관리, 전승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이를 대성동에 적용하는 방안을 수록하였다. 본문 중에서 에코뮤지엄을 이해하고 대성동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에코뮤지엄과 대성동

“에코뮤지엄은 ‘환경·생태(ecology)’와 ‘박물관(museum)’을 합성한 용어로 'eco'라는 접두어 때문에 친환경적인 박물관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eco'는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연유산, 무형유산, 산업자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공동체의 유산과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적응체계의 ‘환경·생태’를 의미한다. “에코뮤지엄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유기적으로 보는 일원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는 사회생태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의 연계성을 지향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통사적 입장에서 박물관의 조건과 공간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 지역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박물관이다.” “지역공동체의 유·무형

유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에코뮤지엄은 환경 친화나 환경 보존에 목적을 둔 환경 박물관이라는 개념보다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삶의 역사, 생업환경, 지역문화를 상호 관계성 속에 민관산학연단이 봉사와 지원, 협력, 기록, 보존, 관리, 활용, 연구, 학교 등을 통해 유산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박물관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에코 뮤지엄에 대해 알랭 주베르는 1992년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31곳을 조사한 결과, 에코뮤지엄의 설립, 운영 목적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① 연구베이스형은 학술사업이 주제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서 영역 내에 중심이 되는 연구시설은 있지만, 안테나를 갖지 않는 경우로 산간탄 안 이브리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② 보전베이스형은 주로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 공원형 에코뮤지엄으로 종 로제르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커뮤니티형은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라르작, 크뢰조 몽소 레민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④ 문화사업형은 문화사업을 중시하며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심 과제인 에코뮤지엄으로 마르제라도 에코뮤지엄 등이 속한다고 보았다.

⑤ 영역활동형은 일정한 영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정비하고, 보전해가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으로 바스 세누 등이 속한다.

⑥ 지역경제형은 지역 경제 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 그 지방의 고유의 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도시들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푸르미 트렐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²¹⁹⁾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세계에서 유일한 성격을 가진 대성동마을은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에코뮤지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미완성의 에코뮤지엄은 앞서 정리된 모든 유형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세계 유일의 DMZ 에코뮤지엄을 완성시켜갈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219) 최중호,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본문 중 재인용

2)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 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다음으로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대한 종합 전시계획을 수록하였다. 이 작업은 대성동에 대한 민속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전시 내용에 담고자 하는 계획안이다. 현재 대성동 마을을 들어서면서 우측 언덕위에 1959년 유엔사가 마을 주민의 회합장소로 공회당을 짓고 자유의 집이라 명명한 건물이 있다. 이 공회당 건물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건물은 60년대 건축된 건물치고는 수준 높은 파사드 디자인과 축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 대성리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되는 장소가 분명하다. 면적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섬세한 축조방식과 감성적 기억은 의미 있게 평가 될 만하다. 근대 건축으로서의 심도 있는 학술적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등재 이후에는 소소한 변경까지도 협의, 승인 후에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학술적으로 검토하여 보존형식 및 레이아웃을 확정하고 리모델링을 한 후 문화재로 등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리모델링 시 외부 파사드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고 노후화된 부분만을 개보수 하며, 약간의 조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1960년 준공이라는 조건으로 보았을 때 2014년 현재 준공 후 54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한이 100년이지만 6.25 전쟁 직후 시공기술을 감안한 일부 시공하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며, 구조 보강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시대 일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는 내구연한은 80년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²⁰⁾

이 공회당을 리모델링하여 가변형 공간구조로 조성하고 마을의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이야기, DMZ에 대한 평화와 공존 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 행사가 이루어지는 마을 기록관으로 조성한다. 특히, 에코뮤지엄의 관점에서 이 공회당을 에코뮤지엄의 중심 센타로 두고 4곳의 거점 공간으로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였다.

검문소(진입로)→ 대성동마을 기록관 (공회당 자유의 집/센타)→ 평화의 길(팔각정~

220) 공사범위조건을 건물내부 마감재 철거 및 개보수, 외부바닥 및 일부 조경, 주차 공간 개보수를 위해 실측설계비용, 개보수 공사 설계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전시인테리어 공사 별도) - 양원준 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 양영철 소장 의견

국기게양대)→ 특산물 판매장(마을 빈 창고 혹은 빈집) 으로 설정하고 각기 다른 네 가지의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재 본문에서 제안한 전시 주제는 거점 공간의 확보 여부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추후 마을 가운데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중심 센타로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공회당 뿐 아니라 1972년에 지은 마을창고, 1950년에 지은 전시 주택, 마을의 지명유래가 된 삼국시대 토성인 '대성'과 팔각정, 마을 회관 옥상 망원경으로 보는 마을 전경과 북측 기정동, 송악산 등의 전경, 대형 태극기와 민정반 등은 어느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관람, 체험거리가 될 수 있다. 각 주제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과 볼거리를 제안하였다.

3)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이상과 같은 대성동 마을의 활용 방안 수립에 참고하고자 몇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강원도 동부전선 DMZ에 위치한 철원두루미 마을과 인제군에 있는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을 1차 답사하고 2차로 영월 박물관 특구를 현지 조사하였다. 특히, 영월 박물관 특구는 2005년부터 행정단위로 구분된 영월군 전체를 박물관 고을로 조성한 에코뮤지엄의 한 형태로 중앙정부의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²²¹⁾

4) 관광과 활용

특히, 현재 관광 시점에서 볼 때 파주 대성동마을은 민통선내 거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이기는 하나 UN 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방문이 관문점 못지않게 어려운 곳이다. 대성동마을 이장을 통해 출입신청을 하면 이장이 직접 관찰부대와 연락하여 출입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출입인원도 제한이 있으며, 농번기에는 이조차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몇 년 전까지는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녀회에서 마을 회관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생업인 농업을 하며 관광객을 맞이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중단되었다. 대성동마을은 민통선 내 주민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역사

221) 2008년 12월에 박물관고를 특구로 지정되었다. 영월박물관 고을은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147개 특구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가 되었다.

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마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근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 한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현재, 경기북부 민간인 통제구역 내 일반인이 사전에 출입신청 없이 당일에도 관광이 가능한 곳은 안보(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역사문화유적(허준선생묘), 마을운영 시설(통일촌마을박물관/직판장, 해마루촌) 등이다. 파주 민북사업소에서는 관할 부대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두 개 코스로 테마를 구성하여 임진각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단되었다가 2014년 재개한 “DMZ-train”이 당일투어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도라산역에서 하차, 제3땅굴 등 연계 관광을 실시하는 코스로 코레일에서 1일 1~2회 운영하고 있다.

민북투어 관광코스

- A코스 : 임진각 출발→제3땅굴(DMZ영상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직판장→통일촌마을박물관→임진각 도착 (약 3시간 소요)
- B코스 : 임진각 출발→허준선생묘→해마루촌→제3땅굴(DMZ영상관)→도라전망대→임진각 도착 (약 3시간 30분 소요)

통일촌에는 통일촌 조성 초기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마을단위의 식당 3곳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일촌 내 과수농원에서 수확체험 등 일반인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12월 개관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민통선 내 최초의 숙박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로 등록하여 경기관광공사가 직영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 하던 공간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 후 60여 년간 미 2사단이 주둔해오다가 2004년 미군의 철수 이후 2007년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곳이다. 미군 철수 이후 철거위기에 놓였지만 60년의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정부에 의해 민간인들의 민통선 내 평화 안보 체험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민북 투어를 단순 관광에서 워크북과 함께 교육적인 즐거움 체험활동으로 새롭게 접근한 “DMZ 1129” 프로그램 및 미군 막사에 서의 1박 체험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통선 내 특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콘텐츠들은 경기북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파주 민북 투어는 수도권에

서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인지도로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 코스이며, 외국인 비율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민통선 내 대표적 관광콘텐츠인 제3땅굴을 중심으로 한 민북투어 코스도 그 명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으로, 대성동과 캠프그리브스와 같이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제3땅굴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로서 이와 관련한 콘텐츠들은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자원일 것이다. 이러한 관광콘텐츠를 좀 더 자유롭게 체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²²²⁾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안보체험관광이 통일촌브랜드마을과 대성동 에코뮤지엄으로 연계 된다면 세계 유일의 DMZ관광코스로 그 시너지 효과를 더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성동은 DMZ 내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로 북측의 기정동마을과 같이 만들어져 남북의 마을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은 남북 교류와 협력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53년 7월, 6·25전쟁 휴전협정 1조 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는 협정에 따라 대성동마을 주민은 유엔군 통제 하에 있다. 유엔군 JSA와 협약 하에 일찍부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 1959년부터 미군과 정부의 지원을 시작으로 주택과 공동건물 건립, 구마을에서 신마을로 집을 옮기면서 주택을 신, 개축하여 현재의 마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측 대성동과 북측 기정동 마을의 교류 및 개방은 DMZ관광뿐 아니라 남북이 소통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먼저, 대성동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남북 예술인 공동 창작촌 운영이 가능하다. 남북 예술인이 대성동 마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하면서 창작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마을에서 발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결과의 누적으로 해외 유사 경험 국 작가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창작촌으로 조성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마을 주민들의 교류와 개방을 통해 대성동과 기정동을 공동 생활권으로 한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²²³⁾ 이미 오래전부터 대성동과 기정동은 자연지리적으로 개성인삼으로

222) 이선형, 경기관광공사 DMZ안보체험관 TF팀장, 파주대성동마을 문화자원 관련 콘텐츠개발 자문, 2014.12.13.

223)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파주대성동마을 문화자원 관련 콘텐츠개발 자문, 2014.12.13.

유명한 개성 생활문화권에 속한다. 따라서 농사 절기와 농산물 경작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김동구 이장의 바래처럼 기정동 주민들이 대성동에 와서 농사일을 품앗이 할 수 있다면 생업과 관련된 가장 현실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우선 이렇게만 보아도 대성동은 DMZ라는 통제된 공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전쟁과 인류평화의 문화유산, DMZ 청정 자연 생태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이제 이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로 그 원천자료를 확보하였음에 의의를 찾는다.

10-2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대성동 적용 방안*

1)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1)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 사회²²⁴⁾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과 지역, 향토 박물관을 중심으로 물질과 정신, 자연과 물산, 환경과 생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미풍양속, 생업기술, 산업자원 등에 대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 생태환경의 보전에 대한 박물관 설립·운영자들의 희망과 박물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박물관은 한사회의 얼굴이자 곧 지표일 수 있고, 박물관이 보여 주는 문화적 함의는 한 사회의 특수한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의 상황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²²⁵⁾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博物館)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요지경(瑤池鏡)이자 만취군상(萬彙群象)의 타임캡슐(time capsule)”²²⁶⁾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및 전문직 윤리요강』(채택 1986.11.4.) 제1조에 정

224)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질적 시행이 유보되었고,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었다. 1991년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의 장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다.

225) 전경수,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서울: 일지사, 2005, 18~19쪽

226) 최중호, 「영월 박물관고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박물관학보』 9, 서울:한국박물관학회, 2005, 117쪽

*최중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의된 박물관은 포괄적 개념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관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박물관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박물관으로 인정한 자연과 고고, 역사, 민족지의 기념물과 유적지, 과학관, 천문관, 자연보전지역 등은 박물관에 포함될 수 있다.²²⁷⁾ ‘박물관 같은’, ‘박물관과 관련된 기관이나 장소 가운데 기록보존소, 영상자료실, 디지털 스튜디오, 공예전승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원, 농원 등이 박물관에 포함될 수 있다.’²²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개정 2004.10.8.)에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²²⁹⁾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정의)에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²³⁰⁾ [개정 2007.7.27, 2009.3.5] [[시행일 2009.6.6]]

동법 제4조에 박물관은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 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227)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및 전문직 윤리요강』(1986년 11월 4일 채택,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5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 파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1986, 2쪽

228)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정관 및 박물관 윤리강령』(1995년 7월 5일 개정, 노르웨이 스타방거, 제18차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총회), 파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1995, 2~3쪽

229)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서울:ICOM한국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2007, 1~13쪽

230)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동법 제5조에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5] [시행일 2009.6.6.]

국내외적으로 박물관이라는 용례를 살펴보면,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 활동을 펼치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박물관’(museum)과 박물관 활동을 펼치지만 박물관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준박물관’(quasi-museum), 박물관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펼치는 ‘유사박물관’(para-museum)이 있다. 고고학적 유적지, 역사적 기념물, 민족지 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동식물사육장, 과학관, 천문관, 보존과학기관, 미술관, 기록보존소, 자연보전지역 등은 준박물관에 속한다. 박물관 같은(museum-like), 박물관 관련(museum-related) 기관들인 과학관, 유산관, 문화관 등은 유사박물관에 속하고 준박물관 범주에 중첩된다. 우리나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에 의하면,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에 따라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에 따라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문화의 집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12.09.]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의 특성을 갖추었을 때, ‘박물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고, 박물관 고유의 사업에 충실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²³¹⁾ 2004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박물관과 무형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을 주제로 제20차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개최되었고, 대회의 폐막일에 개최된 제21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 정

231) 최중호,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박물관학연구』 창간호, 대전: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1996, 17쪽

의가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8월 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2차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정관 제3조 1항에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하고, 교육과 학습, 위락을 위해서, 인류와 인류의 환경에 관한 유형·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개정되었다.²³²⁾

박물관의 영역이 확장함에 따라 오늘날 박물관은 문화유산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의 선구자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비영리의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²³³⁾ 기관으로서 공동체 연계망(community network)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정규의 평생학습과 비영리의 사회교육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평생교육의 핵심(lifelong education core)이자 문화교류의 중심(cultural communication center)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 세계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박물관은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인간사회의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개방하고,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을 목적으로 자연과 인류에 관한 자료와 정보, 유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박물관은 비영리기관, 상설, 공익, 개방을 전제로, 자연과 인류에 관한 유형·무형 유산을 기반으로 사회와 공동체의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

“과거의 박물관은 굳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서 인간 환경의 문제와도 별개의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박물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코뮤지엄(ecomuseum)이다.”²³⁴⁾ 1960년대 중반 프랑스 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논쟁과 불만들은 강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동시에 핵실험·전쟁·산업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유산과 산업유산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60-1970년대의 프랑스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농촌사회가 쇠퇴하는 시기였다.

232) <http://icom.museum/statutes.html> ICOM Statutes Approved in Vienna (Austria) – August 24, 2007. Article 3 – Definition of Terms / Section 1. Museum. A museum is a 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

233) eduinfotainment 는 교육+정보+위락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최중호, 『한국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도시역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3, 80쪽

234)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서울: 북코리아, 2013, 83쪽

에코뮤지엄(ecomuseum)은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박물관협의회 초대회장(재임 1948-1965)을 역임한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가 프랑스 국립공원을 재조직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자연공원과 야외박물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탄생한 프랑스어 에코뮌제(ecomusee)를 번역한 것이다.²³⁵⁾ 에코뮤지엄(ecomuseum; 생태박물관)과 에코뮤지올로지(ecomuseology; 생태박물관학) 개념은 국제박물관협의회 초대회장(재임 1948-1965)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와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장(재임 1965-1974)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에 의해 창시되었다.²³⁶⁾ 1971년 9월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장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은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되는 제9회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의 주제를 《박물관과 환경》으로 채택하였고, 9월 3일 위그 드 바린이 디종(Dijon) 시장이며 환경부 장관인 로베르 푸자드(Robert Poujade)와 그르노블(Grenoble) 국제박물관협의회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로베르 푸자드가 환경 운동에서 박물관의 위치를 강조하는 연설문에 전통적인 ‘박물관’이란 용어를 피하고자 위그 드 바린이 제안한 에코뮤지엄(ecomuseum)을 약 500명의 박물관학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²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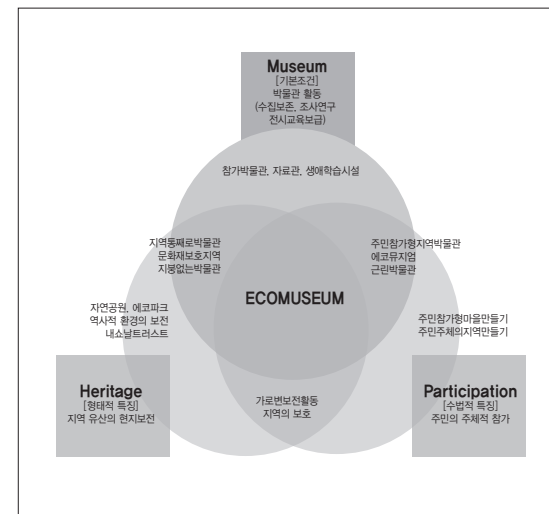
에코뮤지엄은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가 스웨덴의 야외박물관 스칸센 민속원²³⁸⁾을 염두에 두고 자연공원과 야외박물관의 현장성을 살린 공동체의 지역 유산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박물관 설립 운영을 위해 창안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국제적으로 1968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이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에 이바지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기관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1971년 9월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에서 박물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야 함

235) Bedekar, V.H. New Museology for India, New Delhi: National Museum Institute of History of Art, Conservation and Museology, 1995,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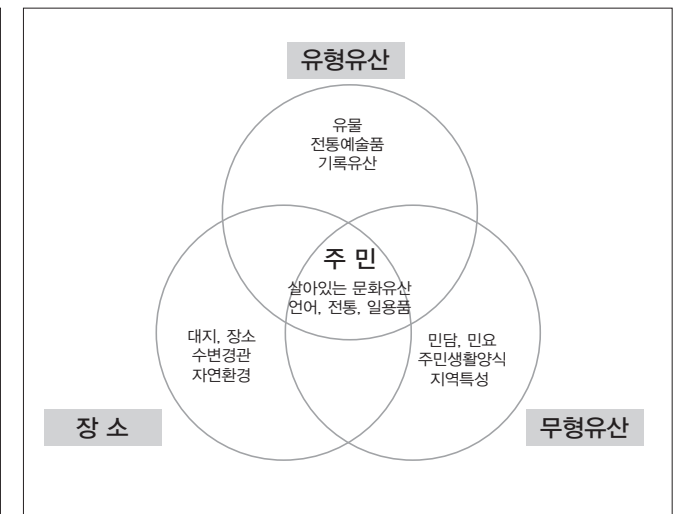
236) 주12 앞의 책, 23쪽

237) 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 - 부르고뉴 지방을 중심으로 -」,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호, 서울: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2, 194쪽 참조

238) 에코뮤지엄의 전신은 스웨덴의 민속전문가이자 스웨덴어 교사였던 아르투르 하젤리우스(Artur Hazelius, 1833~1901)가 1873년 스톡홀름에 세운 스칸디나비아 민족지 수장품관(the Scandinavian Ethnographic Collection)에서 찾을 수 있다. 1880년 북방민족박물관(Nordiska Museet)으로 개명하였고, 1888년 착공한 르네상스 양식의 박물관 건물을 1907년 완공하였다. 1891년 북방민족박물관 부속 야외박물관으로 스톡홀름 중심부 유르고르덴(Djurgården) 섬에 세운 스칸센(Skansen) 민속원은 1963년부터 분리·운영되고 있다. 152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스웨덴 및 스칸디나비아의 다큐멘터리·사진·자서전·일가·도시·전통예술품 등 13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에코뮤지엄 활동 유형과 상호 관계성 분석²³⁹⁾



에코뮤지엄의 유산²⁴⁰⁾

을 촉구하였다. 1972년 산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은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국제박물관 산티아고 원탁회의(Santiago Round Table)에서 ‘장소의 가치’가 에코뮤지엄의 유산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학의 등장과 함께 주민, 장소, 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세미나에서 에코뮤지엄 개념과 용어가 공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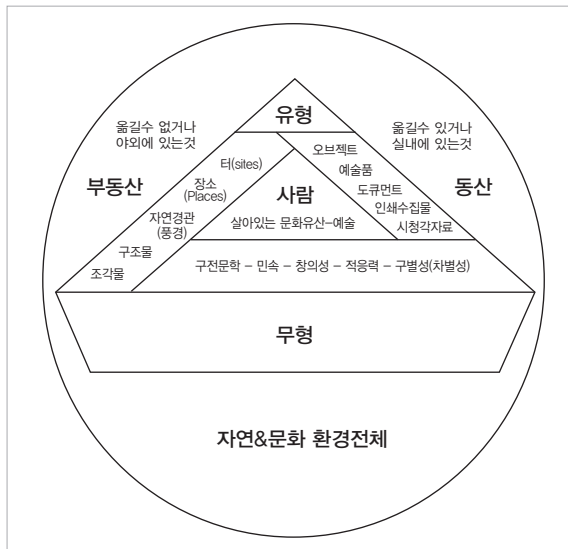
우리는 유형·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전과 활용²⁴¹⁾에 관하여 아마레스와르 갈라(Amareswar Galla) 교수가 인용한 다음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도 노벨상 수상자 고(故)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는 위스와-바라티 대학교(Visva-Bharati University)를 설립하였다. “총체적 학습의 장소인 위스와-바라티 대학교에서, 타고르는 자연과 문화의 식민지적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토착민들의 환경 철학 틀 내에서 유형·무형 유산 양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수많은 철학자들처럼 타고르는 유산의 식민지적 건설의 영향을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후기 식민지의 유산 업무의 개발은 협력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상호

239) 김현정 역, 오히라 가즈오키(大原一興) 저, 1996,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서울:아르케, 2008 참조, 윤희림, 「아리랑 문학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전주: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1쪽

240)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쪽

241) 최중호 역, Galla, Amareswar, 「아시아 태평양 관점에서 유산 전문가를 위한 포괄적 역량 배양」(Inclusive Capacity Building for Heritage Professionals Perspectives from the Pacific Asia), 『사멸위기의 문화유산』, 서울:민속원, 2009, 494~505쪽



출처:생태박물관의 구성요소(A. Galla & P. Yu, 『하롱베이생태박물관』 2005. 12. 07, 국립민속박물관 강연

하롱베이 생태박물관의 유산

으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고, “발굴, 전시, 보존, 조사, 연구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에코뮤지엄 사업을 처음 실행하였다.²⁴³⁾

프랑소아 위베르(Francois Hubert)는 에코뮤지엄의 진화를 3 단계로 보고, 브르

연관되고,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취되는 총체적 패러다임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개발의 과정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상황론적 위치에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문화의 권리를 주장하는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패러다임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유형·무형 자원 양자에 통합된 접근을 요구한다.”²⁴²⁾

에코뮤지엄의 전형은 프랑스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과 랑 드 가스콘노 에코뮤지엄으로서, “1972년 사람과 산업의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예시(豫示)로 출발하여” 1973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기억의 수집 등을 현지보존”하였고, “주민 스

표 12. 에코뮤지엄의 발달 단계별 특징²⁴⁴⁾

단계	과정	특징
1단계	태동기	지역공동체의 가치 발견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능동적 지역 공동체의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단계
2단계	형성기	발굴된 자원의 가치 부여를 통하여 자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람과 자원이 연합하는 과정으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단계
3단계	성숙기	에코뮤지엄이 외부와 관계 맺기를 하는 과정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 또는 각국에 존재하는 에코뮤지엄협회에 회원 가입하거나 같은 취지를 갖는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등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

242) 아마레스와르 갈라, 「진정성:다원적 틀에서 유산 다양성을 다시 생각하기」,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Nara) 의정서』,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995, 315~322쪽

243) 주11, 앞의 책, 43~53쪽

244) 주11, 앞의 책, 42쪽

타뉴 아르모리크 지방자연공원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 지도에 따라 몽 다레 에코 뮤지엄(Ecomusee des Monts d’Arre)과 일 두에상 에코뮤지엄(Ecomusee de l’lle d’Ouessant)이 승인되고, 가스코뉴 지방자연공원에 그랑드 랑드 에코뮤지엄(Ecomusee de Grande Lande)이 승인되는 1970년까지 시기를 제1단계로 간주하였고,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다른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카마르그자연공원(PNR de Camargue)과 세벤느국립공원(Parc National de Cevennes)의 몽-로제르(Mont-Loze’re)와 르 크뢰조(Le Creusot)에 설립된 에코뮤지엄을 제2단계로 간주하였고, 1980년 이후 에코뮤지엄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시기를 제3단계로 간주하였다.²⁴⁵⁾ 또한 프랑소아 위베르는 자연공원 에코뮤지엄을 제1세대, 르크뢰조 에코뮤지엄을 제2세대, 1988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에코뮤지엄을 제3세대로 구분하였다.²⁴⁶⁾

에코뮤지엄의 정의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배려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발견이 추가되어 정리되고 있다.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는 1973년, 1976년, 1980년 세 번에 걸쳐서 에코뮤지엄 정의를 수정하여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를 발표하였다. 이 정의들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⁴⁷⁾

①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73년)

에코뮤지엄이란 현재의 개념에서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박물관이자 생태학적인 박물관으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주민 내에서 일어난 발생과 진화에 관련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연구소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그 지역의 역사가 시대별로 내재된 박물관의 개념으로 전시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주민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진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박물관이다.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박물관의 개념 아래서 겸허하게 행해지는 공간적인 차원의 표현이다.

245) Davis, Peter, *Ecomuseums – A Sense of Place*, Continuum, 2011, p.p. 68–72

246) Hubert, Francois, *Les e’comuse’es en France : contradictions et de’viations*, in *Museum*, 148, 1985, p.p.186–190 참조, 주14 앞의 책, 197 참조

247) 배은석,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0~46쪽

명확하게 열린 또는 가려진 : 사이트와 자연에서 채취한 샘플 혹은 고고학적인 사이트와 역사적인 기념물, 박물관 그리고 주민들의 건물들과 같은 요소들은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그러한 요소들은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관찰의 진보로 연계되며, 에코뮤지엄은 국립공원, 지방공원, 법인체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 따라서 요소들이 달리 운영된다.

②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76년)

에코뮤지엄은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다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불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세대 주민들의 설명에 이어서 연구하려고 한다.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들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자연의 박물관이다. 인류는 그들이 둘러싸인 자연환경 속에서 해석된다. 자연은 전통적인 사회와 산업적인 사회가 그들의 관습에 자연을 맞추려는 것처럼 그 야만성으로 존재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그 시작은 인류가 나타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이 살았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통해서 시간이 나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에까지 이른다.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에코뮤지엄은 결정기관의 역할이 아닌 비평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박물관이다. 그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권적 공간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는 보존기관이다.

에코뮤지엄은 연구소이다. 주민과 그 환경에 대한 이론과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 에코뮤지엄은 학교이다. 에코뮤지엄은 주민들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주민 스스로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 원리에서 착상되었다. 그 기관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떠한 주민 층으로부터 나온 의견이든 간에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관들은 그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해 가야 한다.

에코뮤지엄의 발전에 있어서 분명 모든 것이 유쾌하지는 않다. 그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우리에게 가두는 것과 같은 상황에 주민들을 처하게 하는 위험과 그들을 다뤄야 하는 위험이 있다. 노동자 자주권리와 감독간의 지위에 대한 동요를 일으킬 불명확함도 있으며, 점점 좋아지는 평판을 남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예기치 못한 일들과 어려움이지만, 인내와 긴장이 공간과 시간의 광장이자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기관의 성숙을 통해 그것들을 극복하게 도와준다.²⁴⁸⁾

③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정의(1980년)

에코뮤지엄은 행정당국과 주민이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 활동하는 수단이다. 행정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편의를 도모하고, 재원을 제공한다. 주민은 각자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대처능력을 제공한다.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주민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 거기에서 주민은 자신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지역을 세대의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통해서 이전 세대 주민의 설명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한다. 에코뮤지엄은 이처럼 주민이 자신들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성에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울이다.

에코뮤지엄은 사람과 자연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적 생태의 일부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연은 전통적 사회와 산업사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자연을 맞추도록 하는 그 원초상태로 해석된다.

에코뮤지엄은 시간의 표현이다. 사람이 출현한 시대 바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이 살았던 선사시대·역사시대를 통해서 확대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대에 이른다. 미래에도 에코뮤지엄은 결정기관의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정보전달과 비평적 분석의 역할을 맡는다.

에코뮤지엄은 공간의 해석이다. 그곳은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권적 공간이다.

에코뮤지엄은 보존기관이다. 그 주민의 자연유산·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한다.

에코뮤지엄은 연구소이다. 외부 연구기관과도 협력하여 주민과 그 환경계의 역사적·동시대적 연구에 공헌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248) <http://www.ecomusee-creusot-montceau.fr/lla/communaute.html>(검색일 2011. 9. 20)

에코뮤지엄은 학교이다. 주민을 연구·보존 활동에 참가시키거나, 주민 스스로 미래에 관한 여러 문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는 공통 원리에서 착상되었다. 그 기관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문화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기관들은 어떠한 주민층에서 나온 표명이든 간에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다양화되기까지 자료는 표본마다 달라진다. 기관들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해 가야 한다.²⁴⁹⁾

결론적으로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를 분석하여 보면 정의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그 비중이 지역의 주민과 주민의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통적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보존 기관이자 연구소이며,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예술적 표현이나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다양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한 마디로 정의 되지 않는 에코뮤지엄의 모호성이 있으며, 또한 끝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의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랭 쥬베르(Alain Joubert)는 아래와 같이 에코뮤지엄의 특성을 해설한다.

“행정과 주인이 함께 구상하고 만들어 운영해 가는 도구라는 것의 의미는 행정은 전문가와 함께 수단과 자본을 제공하고, 주민은 정열을 갖고 지식과 대처 능력을 제공하여, 결국 지식과 대처 능력을 행정과 주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주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은, 단절된 시간을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서 지역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즉 주민에게 정확한 지식을 환원한다는 이념이다.

보다 잘 이해하도록 주민이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거울은 호응한다는 것과 상호 존중한다는 이념이다.

인간과 자연의 표현은 강조하는 기본이념 중 하나로, 즉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접하지 않은’ 자연의 반대편에 인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농경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문화적 구축물이다.

249) 김현정 역, 오히라 가즈오키(大原一興) 저, 1996,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서울:아르케, 2008, 24-25쪽 참조.

시간의 표현에서 리비에르에 의해서 완성된 또 하나의 기본적 이념은 미래로 열려 있다는 이념이다. 에코뮤지엄은 스스로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자, 정보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특권적 공간의 해석·이해에서 시간의 해석은 에코뮤지엄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그리고 공간의 해석·이해는 안테나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연구소라는 것은 전문가 육성과 테리토리(영역), 주민, 환경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보존기관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문화 환경의 보호와 활용을 보장한다.

학교라는 것은 미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지역을 스스로 연구하고 보고 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

공통원리라는 것은 문화를 최대한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데, 유산 속에 있는 문화, 고고, 건축, 기념비, 자연, 민족, 가구, 물질 등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유산, 영역에 관계하는 끝없는 다양성으로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지,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²⁵⁰⁾

에코뮤지엄 활동의 특징은 지역 환경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매우 통합적, 학제적이며, 거기에 추가하여 지역주민이 에코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박물관 활동 속에 편입된다는 점에 있다.²⁵¹⁾ 특히 1988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은 많은 편의기술 등을 박물관들에게 제공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박물관들의 결과물로 다양한 유산(En avant la memoire)들을 발굴해 내었다. 4개의 다른 작업 그룹은 공공분야의 유산을 정리하고 농경도구의 어원학과 관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들과 공동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17개의 학과들과 협력하고 있다.”²⁵²⁾

신현요에 의하면, 에코뮤지엄의 개념변화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코뮤지엄의 특징은 그 설립된 목적에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률로써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의 외부로의 반출을 막고 있으며, 유동이 불가능한 유산들은 장소에 보존하거나 박물관과 연계된 중요한 야외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다.

둘째, 에코뮤지엄을 미완성의 박물관이라 지칭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에 능동

250) 주28 앞의 책, 22-23쪽.

251) 민주회, 『제주도 에코 뮤지엄 테마별 특징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7쪽

252) 주19 앞의 논문, 23쪽

적이기 때문이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

셋째, 복합적인 학문영역은 사회학 박물관(Social Museum)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유산을 포함하며 전시물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적용한 새롭고 독특한 해석법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법은 에코뮤지엄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커뮤니티의 보존과 에코뮤지엄의 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변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문화가 주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에코뮤지엄이 성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람객의 직접 참여는 에코뮤지엄이 전시물의 단순전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코뮤지엄 내의 체험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섯째, 에코뮤지엄은 장소를 보존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산으로서 장소는 건축, 생활풍습, 언어, 다양한 직업 등의 전통적, 물질적, 비물질적 유산 등이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와 함께 정의된다. 이러한 점이 에코뮤지엄이 자연친화적인 장소에 바탕을 둔 해석도구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유산의 중요한 정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²⁵³⁾

알랭 주베르에 의하면, 1992년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31곳을 조사한 결과, 에코뮤지엄의 설립·운영 목적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연구베이스형은 학술사업이 주제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서 영역 내에 중심이 되는 연구시설은 있지만, 안테나를 갖지 않는 경우로 산칸탄 안 이브리누 등이 해당된다고 보았다.

2. 보전베이스형은 주로 자연환경의 보호, 지역보전을 중심으로 한 자연공원형 에코뮤지엄으로 종 로제르 등이다.

3. 커뮤니티형은 커뮤니티 사업을 우선시 하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라르작, 크뢰조 몽소 레민 등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4. 문화사업형은 문화사업을 중시하며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심과제인 에코뮤지엄으로 마르제라도 에코뮤지엄 등이 속한다고 보았다.

5. 영역활동형은 일정한 영역에 있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정비하고, 보전해가는 분산형 박물관 유형으로 바스 세누 등이 속한다.

6. 지역경제형은 지역 경제 사업이 기초가 되는 에코뮤지엄으로 그 지방의 고유의 산업,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도시들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며 푸르미 트렐롱이 해당한다고 보았다.”²⁵⁴⁾

(2) 유럽과 동아시아의 에코뮤지엄 활동 사례

① 유럽의 에코뮤지엄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사회·경제 등의 유럽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봉건체제의 귀족사회가 해체되면서 기존의 수직적 계층구조가 근대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수평적 구조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계급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은 근대산업의 발전과 도시화를 촉진하여 농촌사회가 쇠락하는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박물관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업화, 전쟁, 핵개발 등 유럽이 겪은 사회적 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피해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역사문화, 산업유산, 자연환경 등의 보존과 활용,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사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기록, 연구, 해석 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다양성 보장, 인권 존중, 문화향유권 신장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박물관이 한정된 건물에 유물을 수집, 전시한 것과는 다르게 오픈 에어 뮤지엄과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장소 및 지역 안에 그 지역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한다. 이들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현장성을 살려 주변의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한 한 사실 그대로 모습을 보존하면서 상호 관계성을 해석함으로써

253) 주19 앞의 논문, 27쪽

254) 주28 앞의 논문, 68쪽

유산을 재창조한다.

에코뮤지엄 가운데 가칭 대성동 에코뮤지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박물관 활동을 중심으로 유럽과 동아시아 에코뮤지엄의 벤치마킹 대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유럽에서 에코뮤지엄은 산촌이나 농촌의 영역 안에 국한된 발전방법이 아니며 유럽통합계획에 발맞추어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계획은 유럽전역을 협력과 상호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지역의 유산을 토대로 하는 에코뮤지엄이 사회 자본발달의 촉매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들은 지역의 고고학적 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에코뮤지엄의 전문가들은 지역의 유산의 발굴을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탈리아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맹’(Federation des Ecomusee et des musees de societe)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획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가생활이 증가하고 다양한 관광시설과 여가공간의 필요성과 맞물려 지역의 활성화 계획과 함께 에코뮤지엄 계획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관광과 오락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테마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유산들과 관광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많은 역사문화유산들을 간직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으로 지역의 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 이후로 에코뮤지엄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 에코뮤지엄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포르투갈 에코뮤지엄의 특징은 지역학교와 에코뮤지엄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기능의 일부를 에코뮤지엄에

255) 한재희, 「에코뮤지엄 개념에 기초한 지역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8쪽

표13. 에코뮤지엄의 개념 발전과 특징²⁵⁵⁾

구분	박물관의 변천	시기	주요국가의 명칭		유산적 구분			기타
					자연유산	산업유산	문화유산	
야외 박물관	초기 에코뮤지엄 (Proto-eco-museums)	1873	스웨덴-노르디스카 Nordiska		●			
		1891	스웨덴-스칸센 야외박물관 Skansen, Freilichtmuseum		●			헤즐리우스에 의해 설립
		1894	이탈리아-피에뜨레 Museo Pitre				●	
		1895	노르웨이-노르스크 NorskFolkemuseums		●			국가적 독립 정체성 강화
에코뮤지엄의 태동기	대중교육	1914	독일-하이메트 박물관				●	propaganda
	박물관 Open Museum	1918	Heimat museum					
		1935	프랑스-대중문화예술 박물관 Musee d'Artset Traditions populaire				●	
	국제박물관 협의회 창설 ICOM	1946	프랑스-국제박물관 협의회 (ICOM)창설		유네스코 제1차 총회에서 앙리 리비에르가 초대회장으로 선임			
	새로운 박물관학 Towards the New Museology	1950	미국-민속박물관 Folklife museums, 재미-노르웨이 민속박물관 Norwegian American Folklife Museum				●	
		1960	덴마크-체험박물관 Atelier museum, 앵플린 museeenpleineair, 덴마크 박물관 Denmark Museums		아틀리에 박물관의 개념으로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 오늘날 체험박물관의 시초			
		1967	미국-애너크스티아 박물관 Anacostia Neighborhood Museum				●	
		1970	미국-영국 지역사 박물관 small museums, industrial & rural history			●		대중문화 기술전시
		1970년대	영국-새로운 박물관학 Nouvelle Museologie		전문가와 방문객들이 직접 박물관의 연구와 경영에 참여, 유산개념 인식과 재해석을 추구			
	에코뮤지엄 용어의 제안	1971	프랑스 ICOM 회의 ICOM Conference in France		프랑스에서 열린 ICOM 국제회의에서 박물관의 정의가 변화됨을 인정			
	에코뮤지엄 용어의 공인	1972	스웨덴	프랑스 ICOM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f ICOM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과 자연과 인간환경이 관련된 박물관 설립을 위해 에코뮤지엄이란 단어가 등장. 장소, 인간, 지역사회가 연계된 개념으로 에코뮤지엄 정의			
	유산의 개념 정립	1972	칠레-산티아고 선언 Santiago Declaration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선포하고 새로운 유산을 설명			

구분	박물관의 변천	시기	주요국가의 명칭	유산적 구분			기타
				자연유산	산업유산	문화유산	
에코뮤지엄의 태동기	통합된 개념의 박물관	1973	프랑스-르 크뢰조 Le Creusot		●		주민참여 에코뮤지엄
		1975	프랑스-그란데 란데 Grande Lande	●			스칸디나비아 미국모델융합
	시대변화를 반영한 에코뮤지엄	1980년대	환경예술모임 COMMON GROUND	사람과 장소로 연계된 환경예술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소재로 사용			
			프랑스-우송 농촌박물관 Ussonen Forez Rural Museum			●	
			르네 에코뮤지엄 Ecomuseen Paysde Rennes			●	
			이탈리아-프레일 에코뮤지엄 Museodi Prali		●		
			스웨덴-베르그슬라겐 에코뮤지엄 Bergslagen Ecomuseum			●	
			컴토이즈 Musees des Techniques et Cultures Comp-toises				
			프랑스-알사스 에코뮤지엄 Ecomusee d'Alsace	●	●	●	테마공원모델
			네덜란드-조이데르 뮤지엄 Zuiderzee Museum	●			
			프랑스-벤데 에코뮤지엄 Ecomusee Departemental de Vendee	●	●	●	성곽중심 관광경영
		1984	새로운 박물관학을 위한 국제운동(MINOM)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New Museology	새로운 박물관을 위한 국제운동, 에코뮤지엄과 주민참여를 중요한 주로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지역활성화의 개념 발전	1988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Federation des Ecomusees et des musees de societe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창설			
	글로벌 시대의 에코뮤지엄	1990	이탈리아-지역경제연구소(IRES) Istituto Ricerche Economico Sociali	이탈리아 지역경제연구소를 설립.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1995	일본 에코뮤지엄 협회 Japan Ecomuseum Society	일본 에코뮤지엄 협회 창설			
		1997	스칸디나비아 네트워크 Scandinavia network	박물관들의 협력과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에코뮤지엄의 전문화 경향이 나타남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 (FrenchFederation) 발전	에코뮤지엄이 전문화 되고 프랑스 에코뮤지엄 협회에 가입하는 에코뮤지엄의 수가 증가			
	유럽 네트워크	2004 ~	유럽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Long network	유럽 각 지역별로 설립된 에코뮤지엄들이 협력하여 에코뮤지엄의 유럽 네트워크화를 위한 협력계획을 실행			

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과 교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에코뮤지엄은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센터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가.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Ecomusee de la Region de Fourmies-Trelon)²⁵⁶⁾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Ecomusee de la Region de Fourmies-Trelon)은 지역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역 주민은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루미-트렐롱(Fourmies-Trelon)지역은 프랑스 북동부의 벨기에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푸루미 마을과 그 북동쪽 약 7km에 있는 트렐롱을 중심으로 한 프루미-트렐롱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 지역은 약 20여개의 코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4만여 명으로 남북으로 30km, 동서로 약 20km에 걸쳐 있다.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 설립을 위한 지역 협회가 1978년 형성되었고, 에코뮤지엄은 1980년 6월에 처음 개관하였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뮤지엄이지만 프랑스 박물관국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문화부와 지역, 해당 코뮌 내의 다양한 부서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은 1990년에는 유럽 뮤지엄 대상(The European Museum of the Year Award/EMYA)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상을 수여받을 당시 프랑스의 뮤지엄으로는 세 번째로 수상하였고, 에코뮤지엄으로는 처음 대상을 수상하였다. 뮤지엄으로서 완성도 및 정비도는 매우 높으며 이는 위베르(Hubert)가 말하는 두 가지 에코뮤지엄의 분류 중 ‘시설형 에코뮤지엄(Institutional ecomuseum)’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과 유럽으로부터 전체 800만 프랑의 전체 운영 자금 중 70퍼센트를 지원받았으며, 25명의 정직원과 11명의 주정부로부터 85퍼센트의 지원을 받는 5년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150여명의 협회의 회원이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행정적인 업무·연구·보존 업무·관람객의 가이드투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7년 마크 구자드(Marc Goujard)가 지역을 에코뮤지엄으로 정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프루미-트렐롱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의 단기 목표는 계속 파괴되고 있는 방적기계와 유산, 귀중한 장소를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전시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역에서 스코시오-문화 위원회(Scocio-cultural

256) 박정연, 「영국 오픈 에어 뮤지엄(Open-Air Museum)과 프랑스 에코뮤지엄(Ecomuseum)의 특징 비교연구」, 서울: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7-39쪽

committee)의 회의가 열리면서, 지역의 직물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문화유산의 보존 뿐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지역 정체성의 강화·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위한 것이었다. 보존·연구·지역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과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에코뮤지엄의 모형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적 목표들을 고무시킨다.

② 일본과 중국의 에코뮤지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의 역사마을과 중국의 생태마을 조성과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의 유형·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에코뮤지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살아있는 전통을 보존관리하면서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당시의 전통적인 행위들을 시연함으로써 지역 유산을 총체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수행한다.

가. 아사히마치 에코뮤지엄(Aashi-machi Ecomuseum)²⁵⁷⁾

아사히마치는 사과산지로 유명한 야마가타현(Yamakata)에 위치해 있다. 지역정부는 1989년부터 에코뮤지엄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에 공식적으로 마을의 장기 발전계획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과 겨울 스포츠를 테마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중적 유행이 사라짐에 따라 지금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2000년 에코뮤지엄의 중심축인 에코뮤지엄 위원회와 아사히마을 에코뮤지엄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에코뮤지엄 전문가들은 지역 내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문화, 자연환경, 삶의 문화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방식이 만들어졌다. 지역전체가 박물관, 지역주민 모두가 학예사인 아사히마을은 자연, 문화 그리고 장소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주요 테마관인 사과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사과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소개되고 있다. 물레방아를 이용한 방앗간에서는 직

257) 주19 앞의 책, 66~67쪽

접 제분한 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산업시설로는 옛 솿가마가 남아 있으며, 지역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사과온천 테마관이 있다. 또한 아사히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며 포도 농사법과 와인의 제조과정 등이 에코뮤지엄 영역으로 흡수되어 에코뮤지엄의 테마로서 활용되고 있다.

나. 롱리 에코뮤지엄(Longli Ecomuseum)²⁵⁸⁾

진핑(Jinping)군의 롱리마을은 한족마을이고 1386년 이래로 변화되지 않고 옛 마을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롱리마을은 군대가 주둔하면서 만들어졌다. 주변환경으로 인해 교통이 어려웠던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진핑현에 거주하는 주민 20만 명중 약 70%는 각기 다른 소수민족들이다. 실제로 롱리 마을 안에서 한족이 소수민족으로 그들 스스로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존해야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롱리 마을의 인구는 약 6,000명이고 그중 마을 안에 658가구 약 3,580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보내졌던 군인들의 후손들이다. 한족의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 있으며 조상이 남긴 고서를 읽고 학습한다. 중요한 문화유산인 용(龍)춤은 정착생활이 시작된 후 성안에서 놀이로 만들어진 것이다. 옛 성과 관련된 전설은 마을 안 찻집에서 들을 수 있다. 이 마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각각의 모서리에는 망루가 서있으며 롱리는 건축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마을로서 명왕조 시대의 전형적인 마을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 성벽, 절, 묘지 그리고 옛 교각 등 7가지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있으며 마을 유물들의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존작업이 필요하다.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③ 한국의 에코뮤지엄

우리나라에서 마을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은 배영동(2007)의 ‘사촌마을자료전시관’(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 마을)을 통해서 학계에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다.²⁵⁹⁾ 또한 배영동(2011)에 의해 ‘학선리마을박물관’(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의 운영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²⁶⁰⁾ 경기도와 파주시는 2012년 7월부터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통일

258) 주19 앞의 책, 83~84쪽

259) 배영동,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속원, 2007, 7~33쪽

260) 배영동,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자료관 만들기 가능성과 의의」, 『실천민속학 연구』, 17, 안동: 실천민속학회, 2011, 123~155쪽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

촌에 주민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 14일 ‘통일촌 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고, 통일촌 에코뮤지엄은 김지옥(2013)에 의해 통일촌 마실가기 운영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²⁶¹⁾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의성군이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에 걸친 학술연구용역『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에서 배영동(2000)이 마을별로 ‘마을역사문화전시관’ 설립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2002년 의성군이 발주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따른 의성 사촌마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서울에 있는 한 전시업체가 전시관 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에 사촌마을전시관이 개관되었다.²⁶²⁾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도입부에 “이 전시관은 사촌마을의 민속문화를 조사·연구·보존·전시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장과 주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물론 올바른 지방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공공시설이다. 또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장’과 ‘사회교육의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전시물과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²⁶³⁾

- | | |
|----------------|-------------------|
| 1. 도입부 | |
| 1.1 상징물 | 1.2. 자료전시관 안내도 |
| 2. 역사의 변천 | |
| 2.1. 의성군 소개 | 2.2. 점곡면 지명유래 |
| 2.3. 사촌마을의 연혁 | 2.4. 사촌마을 정비 추진배경 |
| 3. 전통문화재 | |
| 3.1. 유생의 일과 | 3.2. 문방사우 |
| 3.3. 사촌마을 전적 | 3.4. 문집 및 저서 |
| 3.5. 민간신앙 | |
| 4. 생활과 민속 | |
| 4.1. 의병활동 | 4.2. 선비 인물 모형 |
| 4.3. 관혼상제 | 4.4. 의식주문화 |
| 4.5. 지역특산물 | 4.6. 민속놀이 |
| 4.7. 지역문화재소개 | 4.8. 사초주변 관광루트 소개 |
| 4.9. 전통건축물 소개 | 4.10 인물과 위인 |
| 5. 자연과 환경 | |
| 5.1. 사촌마을 디오라마 | 5.2. 풍수지리적 해석 |
| 5.3. 환경·생태·식생 | |

이와 관련해서 배영동(2011)은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을 설립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문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바람직한데, “하나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서 이 방면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둘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학문적으로 객관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셋은 전시의 원리와 흐름을 알고 자문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넷은 전시관 건축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전문가가 전시관 건립·전시·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따라 전시관이 설립되어야만 오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²⁶⁴⁾ 고 하였다. 2014년 10월 현재 사촌마을자

261) <http://cafe.daum.net/ggvcnews/E9E4/260?q=%C5%EB%C0%CF%C3%CC%B8%B6%C0%BB%B9%DA%B9%B0%B0%FC&re=1> 검색일 2014.10.01

262) 주38 앞의 글, 12~14쪽

263) 주38 앞의 글, 16쪽 참조

263) 주38 앞의 글, 33쪽

료전시관은 예약에 의해 전시물을 안내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촌마을 관광안내 해설사가 운영하고 있다. 전시연계교육 또는 전시연계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진안 학선리마을박물관은 주민에 의한, 주민에 관한, 주민을 위한 마을박물관으로서 에코뮤지엄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 학선리는 봉곡마을, 을곡마을, 새울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선리마을박물관의 설립은 제천 출신의 이재철씨가 서울에서 17년간 ‘민중목회’, ‘빈민교회’, ‘종교간대화’ 활동을 하다가 2005년 학선리 봉곡마을로 귀농·귀촌을 하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영농법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2006년부터 학선리에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인학교’를 농한기에 주 1회씩 운영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²⁶⁵⁾ 행복한 노인학교 교장은 봉곡교회 목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데, 그 사연은 봉곡초등학교(초등학교) 개교 때 땅을 기증한 분의 자녀가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 봉곡교회가 중심이 되어 폐교를 활용한 ‘행복한 노인학교’,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철 관장 부부는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노인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수집하여 폐교에 손수 수장전시실을 꾸몄고, 또한 수집된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일환으로 진안군으로부터 35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재철 관장 부부가 앞장서고 봉곡교회가 밀어주고, 학선리 주민들이 참여하여 2009년 12월 8일 학선리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다. 2009년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1차 지원금 350만원을 가지고 농한기에 ‘짚풀공예반’, ‘짚신공예반’, ‘연극반’ 등을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 2차 지원금 500만원으로 마을박물관 리플릿, 입간판, 현판 등을 만들었고, 8월의 진안군 마을 축제 기간 하루 동안에 ‘엄니, 손주랑 마을박물관 가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야외에 생태건축으로 도예실(7평)을 건립하였다.

이재철 관장 부부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목록화와 정보화, 전시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다. 신뢰가 확보된 주민들에게 결혼

이나 환갑 사진, 기록물, 쓸모없는 옛 생활용품 등을 마을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학선리 100여 가구 중에 50~60 가구의 기록사진, 농기구, 가구, 복식 등을 기증받았고, 기증에 담긴 이야기를 녹음하거나 기록으로 남겼다.

학선리마을박물관은 봉곡초등학교 폐교 교실 3칸을 활용하여 제1교실: ‘행복한 방’, 제2교실: ‘꿈꾸는 방’, 제3교실: ‘마을박물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한 방’과 ‘꿈꾸는 방’

은 참여와 전시, 체험과 향유를 위한 전시연계교육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선리 마을박물관 전시실’은 학선리 마을 사람들의 삶의 자취가 담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을 진열하여 수장전시연계체험교육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영동(2011)에 의하면, 학선리마을박물관은 “첫째, 이재철 관장이 주도하기는 해도 주민들의 노력이 동반되어 설립된 마을문화자료관이다. 둘째, 개별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을문화자료관이다. 셋째, 작은 것을 활용하여 큰 것을 만들어가는 생산적 문화운동의 과정이다. 넷째,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활력을 부여하는 마을 복지 공간이다.”²⁶⁶⁾ 발표자의 관점에서 보면, 학선리마을박물관은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예술센터로서 마을 주민들의 기억보관소이자 마을 노인들의 행복만들기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통일촌²⁶⁷⁾은 경기도 과주시 군내면 백연리, DMZ 서부전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자리잡은 마을로 군사분계선 남방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민씨, 최씨, 박씨, 이씨 등 집성촌이 있었던 지역이지만 6.25 전쟁 이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다가 1972년 제 1사단 사병과 부사관들이 인근 수넛벌에 ‘전진농장’을



진안 학선리마을박물관 전시실

265)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박사의 소개로 안동대 배영동 교수 일행과 함께 2010년 6월 11일 학선리마을박물관을 현지방문하여 이재철 관장 부부를 면담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전화로 보충조사를 하였다.

266) 주39. 앞의 글, 147~148쪽

267) <http://cafe.daum.net/ggvnews/E9E4/260?q=%C5%EB%C0%CF%C3%CC%B8%B6%C0%BB%B9%DA%B9%B0%B0%FC&re=1> 검색일 2014.10.01



통일촌 마을박물관 통일촌 마실가기
(출처: <http://blog.daum.net/wkdalthf00/343?srchid=BR1>)

개간하였는 데,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 전방 순찰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 농촌을 건설하라”는 특별지시로 1973년 8월에 육군 1사단 제대 장병 40세대와 실향민 40세대 총 80세대가 통일촌에 입주하였다. 통일촌은 건립 당시 이스라엘의 ‘키부츠 촌’을 본따 낮에는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통일촌은 정보화 마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DMZ 세계화브랜드 마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평화 통일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8월 14일 오전 11시 통일촌에서 브랜드마을 개장식과 함께 마을 입주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통일촌 브랜드마을 육성사업 통일촌 에코뮤지엄 ‘통일촌 마실가기’를 주제로 마을박물관 개관식과 마을 탐방로 개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하였다. 통일촌 브랜드마을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구 방공호를 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하였고, 마을길에는 통일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위험한 놀이터’, ‘동지 전망대’, ‘된장공장 벽화’ 등의 조형작품을 설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통일촌박물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탐방로를 관람하면서 벽화그리기, 새 단장한 구 방공호 관람, 통일촌 전통 떡인 조망생이 시식, 평화통일 손수건 만들기, DMZ 생태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통일촌 주민들이 참여한 장단난타, 파주군내 초등학교 리코더 연주회 등을 감상하였다. 또한 통일촌 40주년을 맞아 ‘내가 통일촌에 꼭 가야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사연을 공모해서 선정된 40명을 초청하여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다.

통일촌마을박물관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경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통일촌 주민들이 참여하여 통일촌과 통일촌 주민들에 관한, 통일촌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에코뮤지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통일촌마을박물관 개관 운영 프로그램의 주제를 마실가기로 정하여 주민들이 방문객들에게 마을박물관과 마을 탐방로 등을 안내

해설해 주는 운영 프로그램이 매력적이다. 또한 DMZ와 통일교육, 자연생태환경 보전 등에 관한 상호 유기적 관계성을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2)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적용방안

(1)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적용 가능성

박물관 설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박물관 유산(자료와 공간을 포함)이 지닌 학술적 중요성(역사·지리·사회·문화·예술·자연·생태·환경 등)과 박물관 위치와 환경, 접근성, 교통편, 연계·편의시설, 지역공동체 성원들의 여망, 지역경제·교통·환경·사회·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분야 6가지 구성요소; 자료/정보, 공간/장소, 설립·운영자/이용자를 갖추어야 한다.²⁶⁸⁾ 이러한 구성요건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 및 기능 수행에 대한 특성을 드러낸다. 앞서가는 박물관은 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되고, 유·무형 유산의 수장관리와 연구교육, 교류협력, 위락제공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학습과 연구, 위락을 위해서 인류와 인류의 환경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조사·발굴·관찰·기록·정리·보존·연구·교류·전시·교육하는 기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수행한다.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문제와 수집한 자료를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을 움직이는 박물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박물관 이미지 홍보와 박물관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운영관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차별화와 특성화는 박물관 설립·운영자의 창의력과 경영수완에 달려 있지만 박물관을 구성하는 3가지(인력, 매체, 공간) 분야 6가지 요소(설립·운영자/이용자, 자료/정보, 공간/장소)를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박물관의 4가지 역할(수장관리, 연구교육, 교류협력, 위락향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박물관의 6가지 기능(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성공의 기반이자 실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268) 최중호,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 지침 (2)』,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04, 18쪽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설립·운영자의 설립취지와 경영철학, 박물관 정책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유형의 물질자료뿐만 아니라 무형의 비물질 정보에 관한 것과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에 관한 것 그리고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유유산에 관한 것을 박물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성 속에 통합을 강조하는 다종다양한 박물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박물관 설립·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양방향 교류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지역 공동체 성원들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앞서가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중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문화정보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은 교육정보위락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연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박물관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춰 나날이 증대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적절하고 합법적인 영리추구를 통해서 자립·자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이 자생·자립·교류할 수 있어야 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물관경영자는 박물관의 유지·운영관리를 위해서 장단기적인 경영전략과 계획을 짜고, 준비된 경영전략과 계획을 집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을 재 정비하여 정해진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 등을 투입 또는 충원하여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박물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전문직 종사자를 채용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업무를 분장하여 박물관인과 박물관 전문가, 박물관학자, 박물관자료, 박물관정보 등을 수집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박물관 자료는 유형의 물질, 정보는 무형의 비물질을 의미하고, 유산은 유형·무형을 포괄한다. 자료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정보는 매체를 통해서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과거에 박물관 유산의 표출과 교류는 옥내공간 또는 야외공간이 전부였지만, 오늘날 on-line과 off-line을 넘나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²⁶⁹⁾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유·무형 유산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양방향 교류를 통해서 박물관 사업과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

은 스마트(SMART) 체제의 박물관 경영을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은 박물관의 존재양상에 대해 건축과 조경 분야가 으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의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건축과 조경 분야의 외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부의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의 유산은 유기적인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석을 통해서 박물관 자료와 정보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교류한다. 박물관의 유산은 공간과 장소를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기업으로 말하면 감가상각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옥내공간에서 소장품을 기반으로 상설전시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펼쳤고, 1970년대 이후로 상설전시공간을 야외공간으로 확장해서 박물관 전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박물관의 공간구성과 장소선정은 박물관의 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박물관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 박물관은 해석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앞서가는 박물관에서 스마트 경영 체제의 박물관을 경영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군락 또는 단지 내에 권역별로 테마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연계망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연계망을 통한 관계마케팅을 펼쳐 지역공동체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연계망 마케팅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물관경영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한 좋은 사례가 구겐하임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토머스 크렌스(Thomas Krens) 관장이 취임한 이후 구겐하임 재단은 기업 및 해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성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250여개의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N.Y.)은 ‘상호 연계성’(interconnected),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t),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표방하며 공격적 그리고 고객지향적 마케팅 전략 구사를 통해 미술관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성공을 거둔 대표적

269) 유비쿼터스 시스템(ubiquitous system):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체제

인 미술관”으로 “현재 소호 구겐하임(맨해튼), 구겐하임 에르미타췌(라스베거스), 도이치 구겐하임(베를린), 페기 구겐하임(베니스), 빌바오 구겐하임(빌바오) 등의 분관을 갖고 있으며, 현재 타이중, 싱가포르, 베이징, 홍콩, 리우데자네이루 등의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겐하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며 이를 통해 연간 총 2천5백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최근에는 에르미타췌 미술관 및 루브르박물관과 함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이야(Saadiyat Island)에 대규모 문화특구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⁷⁰⁾ 구겐하임 미술관의 세계화는 전시 횟수의 증대와 수장품²⁷¹⁾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세력을 확장하고, 미술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장품을 수장고에 방치하지 않고 월드 투어를 통해 수익도 얻고 소장품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국제적인 경영전략과 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사업의 성패는 자료와 정보의 축적과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애용자로 끌어들이고, 박물관 사업을 후원하고, 박물관 활동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관객/관람객(audience), 방문객(visit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1980년대 이후 경영기법이 확산되면서 고객(client), 단골(custom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과 사이버 박물관이 확산되면서 이용자(user), 애용자(mania)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 이용자들은 off-line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on-line의 사이버 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립·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ystem)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형성하여 양방향 교류를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체제의 에스엔에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폰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다종다양한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신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이용하기 풍부한 박물관 콘텐츠와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가 연계된 박물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작업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사회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갖

는 독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쉽게 자료와 정보, 문화와 자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체제의 박물관을 경영하는 것이 중·소규모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경수(1996)에 의하면, “박물관에서 미래의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이 바로 박물관에서 지역연구를 세계화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²⁷²⁾ 박물관의 전시·표출도 중요하지만 교류·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산업, 환경을 기반으로 에코뮤지엄은 관광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유산의 네트워크화는 관광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산촌과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에코뮤지엄의 관광활성화의 전략과 연계되면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산학연단의 봉사, 지원, 협력, 조정 등을 통해서 박물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해야 한다.

(2) 대성동의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방안

21세기의 문화정보산업화 시대에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다원주의와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체장애인,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융성을 추구하고, 문화복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²⁷³⁾의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속에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화융성 4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 국민 문화체험 확대 전략은 1)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하여 (1) 국민이 직접 체험할

270) 이보아,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 놓인 박물관 마케팅』, 『민속소식』 Vol. 138,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Feb. 2007, 8~9쪽

271) 수장품(蒐藏品: collections) = 수집(품)+소장품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함.

272) 전경수, 『박물관의 세계화와 지역연구』, 『박물관과 지역문화의 발전방향』, 용인: 경기도박물관, 1996, 44쪽

273) http://www.mcst.go.kr/web/s_policy/plan/vision.jsp 검색일 2014.10.01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며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2) 전국 어디서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동호인 지역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전국동호인 축제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3)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향유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하여 운영하고, 2)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3)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1) 공연연습장 장소 선정과 (2) 설계 및 리모델링, (3) 운영을 지원한다.

두 번째,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략은 1)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1) 국가유물정보온라인서비스를 지원하고, (2) 도서관·박물관 확충을 지원하고, (3) '길 위의 인문학' 확대를 지원하고, 2)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하여 (1) 한옥 숙박체험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지원한다.

세 번째,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은 1) 문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및 학예사 자격인증제 개편을 추진하고, 2)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1)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 컨설팅과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3)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과 4대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1)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한류관광 육성을 지원한다.

네 번째, 문화가치 확산 전략은 1) 공공정책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를 위하여 (1)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하여 (1) 콘텐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 K-Culture로 신한류 창출을 위하여 (1) 한글·아리랑·태권도 특별 홍보를 추진하고, (2)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3) 콘텐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 확대한다.

정부의 문화융성을 위한 4대 전략에 부응하는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시행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전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형성평가하고, 실행한 프로그램을 총괄평가하여 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도서관 등의 무료입장과 영화관, 공연장 등의 할인, 문화기반시설의 야간개장 등을 권고하여 시행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문화카드소지자, 교사와 교직원(초중고

교), 사회복지사, 나눔티켓 참여단체 관계자, 통합이용권 담당자 등을 위한 문화나눔 나눔티켓 등을 시행하고 있다.²⁷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사업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도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인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2. 인문·전통의 재발견, 3. 문화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4. 문화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다종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계층, 사회적 소외계층, 경제적 차상위계층, 지체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박물관들은 실물(originals)과 운영자 중심의 직관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오늘날 박물관들은 자원(resources)과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 박물관은 물품/작품중심(object-oriented)의 전시가 주된 활동이었으나 1980년대 신박물관학이 발달한 이후로 내용중심(content-oriented)의 교육이 주된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로 구미 선진 박물관에서는 프로그램 중심(program-oriented)으로 교류활동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²⁷⁵⁾

프로그램 중심의 박물관 활동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자료와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연구하여 정리·보존하고, 환경과 유산을 다양하게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해석²⁷⁶⁾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박물관에서 해석이라고 함은 조사연구를 통해서 전시와 표출을 하고, 전시와 표출을 통해서 교육과 교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박물관 활동을 펼치고 있고, 조사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시·표출을 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유산보호를 위한 문화다양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핵심요소 가운데 하

274) <http://www.nanumticket.or.kr/Home/GiveTicketInfo/GiveTicket.aspx> 검색일 2014.10.01

275) 최중호, 「우리시대의 여가문화로서 박물관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 『실천민속학 연구』 13, 안동: 실천민속학회, 2009a, 146쪽

276) 박물관학에서 해석(解釋: interpretation)은 조사·연구를 통해 전시·표출하고, 전시·표출을 통해 교육·교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함.

나인 “박물관 교육은 유물과 수집품 전시에서 탈피하여 이들 유물과 수집품으로부터 가치있는 가르침을 이끌어내고 배우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²⁷⁷⁾ 있다. 박물관 교육은 평생 학습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 경험, 인식을 공유하고,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오늘날 앞서가는 박물관에서의 교육활동은 참여와 체험을 통해 인문사회계박물관에서는 역사인식과 문화이해, 예체능계박물관에서는 예술감상과 창작활동, 과학기술계박물관에서는 현상발견과 원리탐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는 박물관 수집품을 중심으로 전시연계 교육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공동체 성원들의 지·덕·체·영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인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으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경우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하였고, 직장여성들의 경우에 가족 및 친구들과 하는 사적영역의 여가활동이 증가하였고, 특히 가정주부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아실현 보다 가족들을 위한 생활시간이 증가하였다.²⁷⁸⁾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박물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성별, 계층별, 관심분야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가족 동반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공동체연계 이벤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체험학습을 즐기게 하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는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야 하고, 교육정보위락(eduinfotainment) 측면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흥밋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가는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은 특히 교육정보위락 측면에서 박물관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 희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가능하고, 환류(feedback)를 통해서 심화 발전할 수 있다.

발표자는 대성동 마을 박물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증

277) Hooper-Greenhill, Eileen, *Museums and Their Visitors*, London: Routledge, 1994, p. 230

278) 최종호, 2009a, 앞의 글, 145쪽

대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동체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유·무형 유산을 수집하여 전시연계교육, 전시연계이벤트,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성동 마을 가꾸기와 대성동 마을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10-3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시계획 및 체험프로그램 제안

1) 현황분석

(1) 위치 및 행정구역

본 사업 지역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로 대한민국의 최북단 비무장 지대인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자유의 다리에서 북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지점이며 개성에서 남쪽으로 불과 1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이 마을은 군사분계선과는 약 400m, 북한 기정동과는 약 800m정도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형성된 대성동마을은 그에 따라 남한 내 6·25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극대치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본 사업의 목표가 구현되기에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의 행정구역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종(憲宗)15년(1849)에 간행된 『장단지(長湍志)』 「방리조(坊里條)」에 따르면 대성동마을은 진북면 조산리에 속해졌다. 장단군은 20



대성동 지리적 위치(출처: e-영상역사관)

개면 63개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개의 면이 진북면인 것이다.²⁷⁹⁾ 고종(高宗) 32년(1895)에 기존의 군현제(郡縣制)에 입각한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府) 336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은 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교하군은 파주군에 속하였다가 복구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에는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道)가 설치되었는데 파주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 직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의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에 장단군은 20개면 68개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단군은 전체 10면 67리의 체제가 되었고 장단면 지역이 진남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조사지역인 대성동은 진북면 조산리, 송산리일부와 개성군 동면 백동읍리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군내면 조산리가 되었다.²⁸⁰⁾ 1934년에 장단군이 10개면 66개리로 구성된 이후에도 대성동마을은 군내면 조산리에 소속되었다.²⁸¹⁾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적성현과 장단현이 군으로 승격되었고 국토분단과 함께 5개면이 북한에 편입되고 5개면 41개리만 남게 되었다. 1962년 11월 21일자 법령(法令) 1178호에 의해 연천군과 파주군이 폐합(廢合)된 후²⁸²⁾ 군내면은 1963년 1월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하여 파주군 임진면(현 문산읍)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을 편입하여 15면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3면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 11월에 장단, 군내, 진동, 진서 4개면이 파주군으로 편입되었다.²⁸³⁾ 1979년 5월1일 군조례 제610호에 의하여 출장소가 설치되어 백연리와 조산리를 포함한 4개 면을 관할하고 있다.²⁸⁴⁾

(2) 역사 및 연혁

대성동마을의 형성은 한반도 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후방으로 피란을 떠나게 되자 마을에는 16세대 60명의 노인과 아이

279) 『장단군지』, 장단군지편찬위원회, 1980, 25-26쪽.

280) 파주군·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출판사, 1995, 243쪽.

281)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앞의책, 28쪽.

282) 장단군지편찬위원회, 앞의책, 30쪽.

283)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 상권, 1984, 116쪽.

284) 파주군·파주문화원, 앞의책, 241쪽.

들만 남게 되었다. 1951년 10월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개최되자 피란을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을로 돌아왔다. 정전회담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약 1년 간의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남북의 전투를 중단하기 위해 열린 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판문점 인근에 위치한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북한의 기정동마을만이 예외적으로 전투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정전회담 결과 대성동마을은 유엔사가 관할하게 되었다. 이후 1953년 북한의 기정동과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되게 되었다. 당시 대성동마을은 다행스럽

게도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과거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진 삶의 방식과 마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쟁통에서도 그들의 삶과 문화를 끈질기게 이어온 대성동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1959년부터이다. 1959년 유엔사와 남한 정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설립하고 그 작업을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예컨대 마을에는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가 도입되었고 유엔사와 정부의 지원하에 블록주택(근대식 벽돌 문화주택) 3동이 지어졌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이 세워졌다.

이처럼 자유의 마을은 국가의 차원에서 남한 내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급속한 근대적



대성동문화주택 조성 관련 기사(출처: 동아일보, 1960.3.17.)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²⁸⁵⁾에서 마을에 무상으로 문화주택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건립 과정에서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가 이루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여 공사 담당 회사의 보충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²⁸⁶⁾

1965년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기와집이, 1968년 5월에는 대성동국민학교도 신축되었다. 1969년에는 대성동마을주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이후, 1972년 완료된 제1차 대성동 종합개발에 의해 주택과 도로, 공동 시설, 전기 가설, 경지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택 개량과 시설 현대화, 학교 개축, 하천 정비, 상수도 설치, 경지 정리 등의 2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1980년 제2차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저수지 신설, 농경지 정리, 주택현대화 등 현재 대성동마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대성동마을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개발의 배경에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남북한이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남한을 선전하기 위한 마을이다. 즉 남북한은 비무장 지대 내 유일한 마을이며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자신의 체제를 경쟁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선전의 지역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이후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2) 전시 기본 방향

(1) 전시 개념

본 전시는 대성동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 ‘분단과 대치’라는 상징에서 출발하여 ‘인류평화의 문화유산’으로 귀결하는 것을 전시를 관통하는 콘셉트로 삼는다. 대성동마을은 DMZ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로서 불과 200m 앞에 군사분계

선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에서는 육안으로 북한군 초소와 마을이 보인다. 이처럼 전시는 먼저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분단과 대치, 즉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과 팽팽하게 흐르는 긴장감 등을 전시의 콘셉트로 삼는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대성동 자유 마을을 인류평화의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킨다. 대성동 자유 마을이 UN의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졌으며 60년간 UN이 지켜온 평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마을에서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에 이르는 방대한 유물의 발견과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 등, 대성동마을은 한반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보존해야 할 인류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전시 콘셉트로 한다.

(2) 기본 방향

본 전시는 대성동 사람들의 삶을 기본 콘텐츠로 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전쟁과 평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그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전쟁의 위험성과 현재 분단 대치의 현실을 전시하고 민통선 안에서 살아가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통제된 생활문화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해본다.

본 전시는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가 용이한 가변의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 내 현재 방치되고 있는 자유의 집을 원형 복원하고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이때 전시교체와 이벤트 개최가 용이한 가변형 공간구조로 건축한다. 유니버설한 공간디자인으로 방문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본 전시의 연출은 다큐멘터리적 연출을 활용하여 전시에 대한 몰입과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이를 위해 인터뷰와 기록영상을 활용한 내러티브의 전시를 연출하고 생생한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영화적 기법을 복합 연출한다. 또한 마을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형 연출을 전시에 활용한다.

본 전시는 민통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주도형의 운영시스템을 구축,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형의 시설운영 및 마을민의 소득구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성립한다. 판문점, 도라전망대 등 인근시설과 연계한 안보투어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DMZ영화제, 마을체험 등을 연계한 프리덤타운축제를 운영한다.

285)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미국 대외 원조 기관)

286) “보충공사키로 말썽난 대성동주택”, 《동아일보》, 1960년 3월 17일 작성

3) 전시 주제 및 동선

본 전시는 검문소(진입로), 방공호(영상관), 대성동마을 기록관(자유의 집), 평화의 길(팔각정/국기계양대), 특산물판매장(마을창고) 등의 각기 다른 다섯 개의 공간을 통해 총 네 가지의 주제를 전달한다. 각 전시 공간은 각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마을 혹은 국가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곳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전시 공간을 통해 주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므로 관람객은 순차적인 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이해하게 된다.

우선 관람객은 검문소를 통해 철조망 속 자유마을로 들어가게 된다. 관람객은 휴전선 안으로 진입하게 되고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진입하면서 겪는 공간의 이동과 그 과정에서 감각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풍경을 통해 관람객은 현재의 분단과 대치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삼엄한 경비 및 통제의 광경을 통해 본격적인 전시 및 마을 방문에 앞서 관람객의 심리적 긴장감을 야기하여 전시에 대해 준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관람객들은 이내 방공호(영상관)에 도착하게 된다. 방공호에서는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이라는 스토리로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을 영상을 통해 전달한다. ‘#1포화 속의 새벽’, ‘#2휴전협정과 마을민의 귀향’, ‘#3평온과 불안한 삶과 수난’, ‘#4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등 대성동마을의 통시적인 역사를 잘 보여주는 영상물을 통해 대성동마을이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이 또한 차후 전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앞서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더욱이 생생한 영상물을 통해 관람객의 다양한 감각을 일깨움으로써 전시에 대한 긴장감과 집중도를 고조시킨다.

방공호를 지나 관람객은 대성동마을 기록관과 평화의 길을 거치면서 비무장지대 속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인식한다. 대성동마을 기록관, 일명 자유의 집에서는 대성동이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로서 공동경비구역 내 마을이며 자유와 평화의 마을이라는 것을 알린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민통선 안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여 그들이 어떻게 타지역과는 다른 생활과 문화를 형성하였는지 이해한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대성동마을이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편 평화의 길에서는 군사분계선을 200m 눈앞에 두고 있는 공간으로 100m 높이의 국기계양대와 방탄유리로 덮인 팔각정을 통해 전쟁의 지속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북쪽

을 가깝게 마주하면서 거대한 조형물과 그것들의 형성된 배경 및 의미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한 분단의 상황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유산으로 확장되는 대성동마을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대성동마을은 분단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게 된 마을로 분단의 상징이나 또한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평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성동마을의 청정 환경자원 및 발견된 유수의 유적·유물을 통해 대성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류평화의 세계유산으로서 대성동마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전시한다. 이를 위해 ‘Discovery of DMZ’와 같은 기획전시를 한다. 또한 마을의 특산물 판매장인 만큼 마을 주민들과 관람객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마을 특산품을 판매한다.



4) 전시프로그램(안)

검문소에서는 ‘철조망 속의 자유의 마을로’라는 전시주제로 전시의 서막을 연다. 전시에 활용되는 코너 및 아이템은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이고 연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신원을 확인하며 물품보관실도 구비한다. UN의 협조와 민정반의 경호를 받아 5~10명 단위로 모뎀 관람을 시행한다.

방공호는 영상관으로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라는 주제로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을 전시 아이টে으로 삼는다. 먼저 마을투어 오리엔테이션 및 주의사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부터 변천과정을 프로젝트의 영상으로 상영한다.

자유의 집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을 홍보하는 마을기록관으로서 네 가지의 코너 및 아이টে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에서는 주민권, 출입증, 방문자명단 등의 전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마을의 특수한 환경을 소개한다.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에서는 1959년 벽돌문화주택, 발전기 도입 등에서 엿볼 수 있는 UN의 근대화마을 계획으로 마을의 변화양상을 기록사진과 패넌을 통해 연출한다. ‘민통선 안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민정반(국군)과 동행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과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만남과 북한의 대성동 주민 납치와 억류 등 북한과 관련된 일화와 주요사건을 보도자료와 함께 인터뷰 영상으로 설명한다.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이자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이 갖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을 영상으로 설명한다.

마을길에서는 안보체험 길로서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이라는 주제로 전시한다.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에서는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 높이의 북한 인공기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방탄유리의 팔각정’에서는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할 수 있어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모바일 증강현실로 전달한다.

마을창고에서는 ‘세계평화의 문화유산으로’라는 주제로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고 ‘청정 자연의 DMZ 특산물’이라는 주제로 DMZ를 소개, 특산물을 판매한다.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의 유산으로’라는 코너에서는 세계 평화의 상징성으로서 대성동마을이 가지는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

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또한 평화통일의 염원과 바람, 관람후기와 감상평을 메시지로 남기는 코너를 구성한다.

기획전시 ‘Discovery of DMZ’를 통해 자연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을 UHD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전시한다. 또한 ‘특산물 판매장’ 코너에서는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한편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존		코너 및 아이টে	연출 내용
검문소	철조망 속의 자유의 마을로 (프로로그)	휴전선 속으로	• 안내데스크, 관람객 신원확인, 물품보관실 계획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	• 5~10명 단위의 모뎀 관람(UN협조, 민정반 경호)
방공호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영상관)	6.25전쟁과 대성동 사람들	• 마을투어의 오리엔테이션, 주의사항 및 안전교육 • 대성동마을의 형성배경부터 변천과정을 프로젝트 영상으로 상영
자유의 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 (마을기록관)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	•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마을 환경소개(주민권, 출입증, 방문자명단 등 전시)
자유의 집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마을 (마을기록관)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	• 1959년 벽돌문화주택, 발전기 도입 등 UN의 근대화마을 계획으로 변화되는 대성동을 기록사진과 패넌로 연출 • 군사경제적 선전마을로서 남북이 경쟁적으로 개발한 남한의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을 미니어처로 연출
		민통선 안의 삶 이야기	• 민정반(국군)과 동행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독특한 생활문화 소개 • 북한주민과의 만남, 북한의 대성동 주민 납치와 억류 등 북한과 관련된 일화와 주요사건을 보도자료와 인터뷰 영상으로 설명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	•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의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미래비전을 영상으로 설명
마을길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 (안보체험길)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	•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 높이의 북한 인공기 조망
		방탄유리의 팔각정	•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하며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모바일 증강현실로 전달
마을 창고 마을	세계평화의 문화유산 (에필로그)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에서 유산으로	•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대성동마을이 지닌 상징적 가치와 의미 조망 •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홍보 • 평화통일의 염원과 바람, 관람후기와 감상평을 메시지로 남기는 코너 구성
	청정자연의 DMZ 특산물	Discovery of DMZ (기획전시)	• 자연 그대로 보존된 DMZ의 생태환경을 UHD 다큐멘터리영상으로 전시
		특산물 판매장	•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물 판매/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 상품 판매/지역농가와 연계한 체류형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5) 세부연출계획

(1) 철조망 속 자유의 마을로

본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자유의 마을로 진입하는 과정의 공간, 예컨대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은 공간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이다. 방문객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공간을 통과할 때 마치 전쟁에 대한 환영을 경험한다.

관람객은 신원 확인을 받은 후 방문서약서를 쓴다. 출입 절차를 마치면 5~10명을 모듬 단위로 구성하여 UN협조하에 대성동마을로 이동한다. 본격적인 대성동마을 투어에 앞서 방문객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사전 교육을 한다. 유엔사 규정과 협조하에 발급된 출입증을 배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통제와 검열시스템을 경험하게 하고 투어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마을 출입을 위한 민통선의 출입증(리플릿)과 파란 수건은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도 관람객이 소지할 수 있게 하여 마을 방문의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① 전시 프로그램(안)

가. 휴전선 속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이 맡았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는 반세기만인 2004년 11월 한국군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 그에 따라 관람객들은 한국군 1사단이 관할하는 통일대교에 신분증을 맡기고 유엔사 소속 군인의 보호 아래 이동한다.

통일대교를 지나 검문소 앞에 도착한 방문객은 JSA 민정소대에 들어가 신원을 확인 받은 후 방문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방문서약서를 작성한 관람객은 대성동마을 안보투어 관람안내 및 출입증과 민간인 식별 표시를 제공받는다. 또한 민간인 차량을 표시하는 파란 천을 배부한다. 파란색 천은 유엔사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증표이자 평화를 상징하며 관람객을 보호하는 표식이 된다.

통행에 필요한 행정적 작업이 끝나면 UN사 협조 하에 안전교육 및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촬영 가능 지역과 제한 지역을 설명하여 보안이 필요한 지역은 촬영을 엄격히 제한함을 알린다. 북한 쪽으로는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대성동 내부를 찍는 것은 철저히 금지된다는 사실 등을 주지시킨다.

나. 철책을 지나 지뢰밭 사이로

관람객 5~10명을 한 모둠으로 하여 마을로 이동하는데 이때 대성동 주민을 도슨트로 동행한다. 또한 일련의 안보투어는 민정반의 경호하에 진행되며 민정반은 관람객의 주의가 필요한 순간마다 주의 사항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킨다.

민정반은 민정경찰(DMZ police)을 창하는 것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으로 설치되었다. 민정반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을 허가받고 비무장지대 내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을 위해 예정된 인원을 지칭한다. 1963년부터 미군 제1기갑사단 민사처에 소속된 민정반이 마을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대성동마을 중심에 위치한다.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거나 주민 영농 작업 시에 에스코트 하는 등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와 대성동마을에 대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민사행정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수행하며, 마을내부 경비, 마을 주민의 복지, 그리고 구호업무 등에 대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람객은 민정반의 경호하에 철책과 지뢰밭을 지나 대성동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은 민정반의 경호하에 이동한다는 사실과 차창 밖의 적막한 환경을 통해 분단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긴장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도슨트의 이야기를 통해 대성동마을에 이르기 전 마을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학습한다.

(2) 전쟁과 평화의 공존지대(방공호 영상관)

② 전시 개요

오리엔테이션 영상관으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성동 방공호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방공호는 남북한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 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대피 하던 곳으로 휴전 상황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방공호



민통선 출입증(출처:google)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출처:google)

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활용하여 영상으로 생생히 전해지는 긴장감을 강화한다. 즉, 실제 주민들의 대피처인 방공호에서 6·25전쟁과 분단 대치의 60년간의 주민들의 삶을 생생히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관람객에게 영상의 현실적 재현을 강화시켜준다.

또한 방공호에서 관람객에게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역사와 안보투어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이 담고 있는 인류평화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는 본격적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 투어에 앞서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보다 후의 전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안보투어의 주의사항을 재언급하여 강조함으로써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한다.

디오라마 영상관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디오라마 연출과 방공호 벽면을 활용한 대형 멀티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극적으로 전달하는 영화적 기법을 실행한다. 디오라마 연출은 파노라마와 유사하지만 주위 환경이나 배경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모형 역시 축소 모형으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노라마는 실제 환경에 가깝도록 실물이나 모형을 배치하여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1 포화 속의 새벽



#2 휴전협정과 피난민의 귀향



#3 평온 속의 긴장된 삶과 수난



#4 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디오라마 기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연출한다.

#1 포화속의 새벽, #2 휴전협정과 피난민의 귀향, #3 평온 속 긴장된 삶과 수난, #4 인류 평화와 자유의 상징.

(3)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마을(자유의 집)

① 전시 개요

정전협정부부터 현재까지 약 60년간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 최북단 비무장지대 내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선전 마을인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비교·전시한다.

또한 본 전시에는 주로 3차원 다큐멘터리 연출을 구현한다. 6·25전쟁을 상기시키는 오브제형의 연출세트와 국가기록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다큐멘터리 연출을 통해 역사적 교훈과 전시의 감성, 메시지의 공감을 극대화시킨다.

전시 공간인 공회당 '자유의 집'은 통일촌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마을의 동쪽 낮은 산자락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곳은 마을주민의 집회·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대성국민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나, 정부의 위문품지급(추석선물, 연말 위문품 전달) 등 거의 모든 마을행사를 치른 장소이자 대성동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유서 깊은 장소이며,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라고 하겠다.



세계 1차 대전을 디오라마로 연출한 장면(출처:전쟁기념관)



3차원의 다큐멘터리 연출1(출처:해병대박물관)

공회당(자유의 집)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59년 유엔사가 그 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낙후된 자유의 마을을 근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때 마을주민의 유일한 회합장소로서의 공회당도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공회당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의 알선으로 미군이 기증한 발전기를 도입하였고, 근대식 문화 주택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도 세워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회당은 대성동마을 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몇 남지 않은 건물이다. 따라서 공회당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김으로써 공회당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의의를 전시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보존할 수 있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공동경비구역의 대성동마을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이자 대한민국 땅이면서도 UN의 통제를 받는 등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환경과 그에 관련된 역사를 소개한다. 앞서 간략히 제시한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전시 주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대성동마을은 한반도의 현대사, 특히 한국 전쟁 이후의 시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한 마을의 재구성 과정을 중점으로 제시한다.

대성동마을은 1951년 10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정전회담에서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한반도 내 유일한 비전투 지역으로 선정되어 UN사의 관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되자 마을에는 주민이 다시 모여들었고 오늘날 같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표14.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요 변천과정

시 기	내 용	주 택
6.25 전쟁	마을 파괴	-
1953년 8월~1968년	1953년 8월 휴전협정 및 주민 귀환 1959년 문화주택, 공회당,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등	기와집, 초가집 일부 문화주택(시멘트블록집)
1971년~1972년	대성동 종합개발	새마을주택(시멘트블록집)
1978년~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1단계)	양옥집(1층집, 2층집, 연립 등)
1982년~1983년	대성동 종합개발(2단계)	-

전쟁 후 불모지에 가까웠던 대성동마을은 1950년대 말에 이루어진 공공시설 건립과 1970년 대 두 차례의 대규모 종합개발에 의해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변모한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의 배경에는 남북이 서로 체제경쟁에 열을 올리던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북한의 기정동마을(평화의 마을)이 그러하듯 남한의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도 남한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1958~1959년 유엔과 남한 정부는 문화주택 및 공회당 등의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마을을 재건하고자 했다. 그 후 약 10년 뒤인 1971~1972년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이 시행되

표15. 대성동마을 주요 발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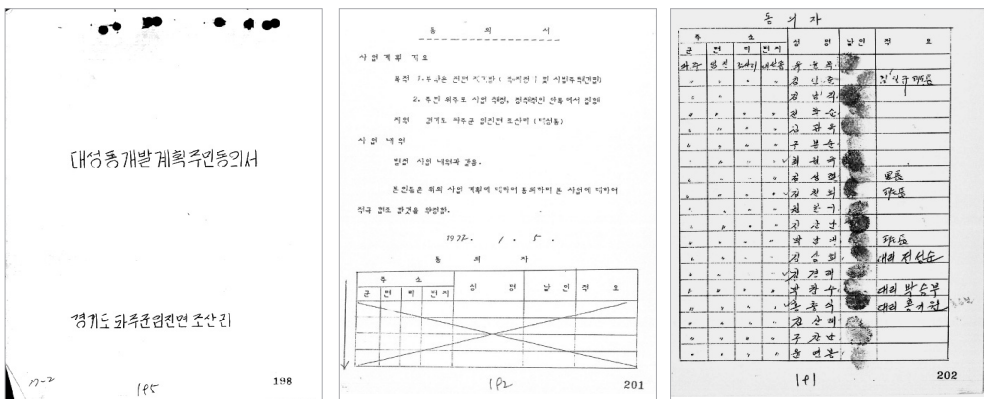
연 도	내 용	대성동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전통적인 농촌 자연마을
1951년 1월	1.4후퇴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 피난	마을 비움
1953년 8월	휴전협정에 의해 북한의 기정동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	DMZ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 (자유의 마을 설치, 1953.8.3)
1959년 12월	문화주택(블록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공회당(자유의 집)과 동사무실, 의무실, 목욕탕	공공시설 설치 (문화주택)
1962년 11월	장단군에서 파주군 군내면 조산리로 행정구역 개편	
1963년	장단군 임진면으로 편입 미 제1기갑사단 민사처 소속 민정반 파견	
1965년	정부지원하에 블록건물 철거하고 기와집 신축	
1968년 5월	대성동국민학교 건축	
1969년	주민등록증 발급	
1971년~72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착수 (주택, 저수지 신축 및 농지 정리)	구마을과 신마을로 나뉨 (새마을주택)
1974년	대성동정미소 신축	
1976년	JSA경비대대로 민정반 업무 이양 대성동 교회 신축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발생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서 북한군이 미군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사건
1978년	영농한계선 표지판 80개 설치	
1979년~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1단계) 주택개량, 민정반사무실, 팔각정, 국기게양대 신축 초등학교 2층으로 확장	구마을 사라지고, 마을전체 종합개발 완료 (현대식 주택)
1982년~83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2단계) (저수지신설, 경지정리사업)	
1994년 6월	자유의 마을 대성동 헌판 설치	
1998년 10월	마을 복지회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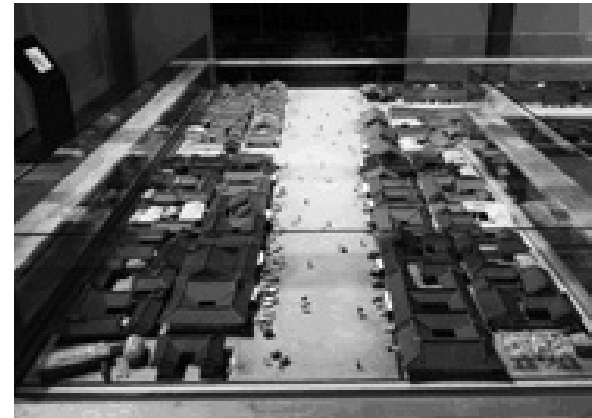
대성동 건너편 기정동 '평화의 마을' 전경



공회당 '자유 집'의 전경과 그 실내(출처:국가기원, 대성동국민학교, 3회 대성초등학교 졸업식)



대성동개발계획주민동의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전시에 활용된 미니어처(출처:서울역사박물관)

어 마을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고 1978~1980년 한 차례 더 이루어진 대성동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마을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도로가 깔리고 현대식 주택이 들어서며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이 현대화 되었고 동시에 팔각정 등의 국가적 상징물이 축조되었다. 이는 대성동 개발의 목적이 DMZ 인근의 유희농경지 개발뿐 아니라 선전마을 개발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기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성동마을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최북단 지역으로 정부의 각종 혜택과 꾸준한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의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

군사·경제적 선전마을로서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개발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미니어처로 비교하여 연출한다. 미니어처는 실제 사물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으로 한 눈에 볼 수 없는 사물의 원형을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마치 멀리서 조망하듯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전시공간 안에서 조망할 수 있고 또한 쉽게 비교·대조할 수 있다.

본 전시는 이와 같이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을 비교 전시하여 각 마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남북한 마을과 그 속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한다.

기정동마을은 대성동마을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기정동마을 역시 대성동마을과 마찬가지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된 마을이다. 또한 이 마

을은 대성동과 같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민간인 거주지이다. 기정동 마을은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본래 ‘틀높이’ 또는 ‘트느피’ 마을로 불렸다. 그 후 마을에 기계로 우물 물을 퍼올리는 관개시설이 설치되자 마을 이름을 기정동으로 개칭했다.

기정동마을은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에 오르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웃마을인 대성동마을과 인접해 있다. 이 두 마을은 마을 사이에 넓은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다. 현재는 사천(沙川)을 따라 형성된 자연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마을간 교류가 많았다. 두 마을은 불과 1.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분단이라는 현실 상황하에 지난 60년간 왕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은 정전협정의 내용 중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씩 마을은 둔다.’는 규정에 따라 그 해 8월 3일 남한의 대성동마을과 함께 조성되었다. 비록 두 마을 모두가 각 체제의 선전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마을로 활용되었을지라도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두 마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이웃하던 두 마을이 정전협정 이후 갈라져 다른 운명을 겪었고 그 결과 오늘 날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문화를 형성했다.

(4)대성동 사람들의 삶(자유의 집)

① 전시 개요



인터랙티브 영상을 활용한 전시(출처:전쟁기념관)

JSA부대원의 경호하에 관람객들이 북한과 가장 가까이 살면서 겪어야 했던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특수한 삶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대성동 사람들의 주거와 생활, 생업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민통선 밖의 사람들과의 생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삶이 지닌 특징과 분단의 아픔을 알도록 한다.

인터랙티브 체험관에서는 대성동사람들과 JSA부대원의 인터뷰 영상과 관람객 몸에 투사(조준)되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 북한군 사정거리 안에서의 평온과 긴장된 삶과 수난을 체험하도록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간직해온 대성동마을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게 한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민통선 안의 삶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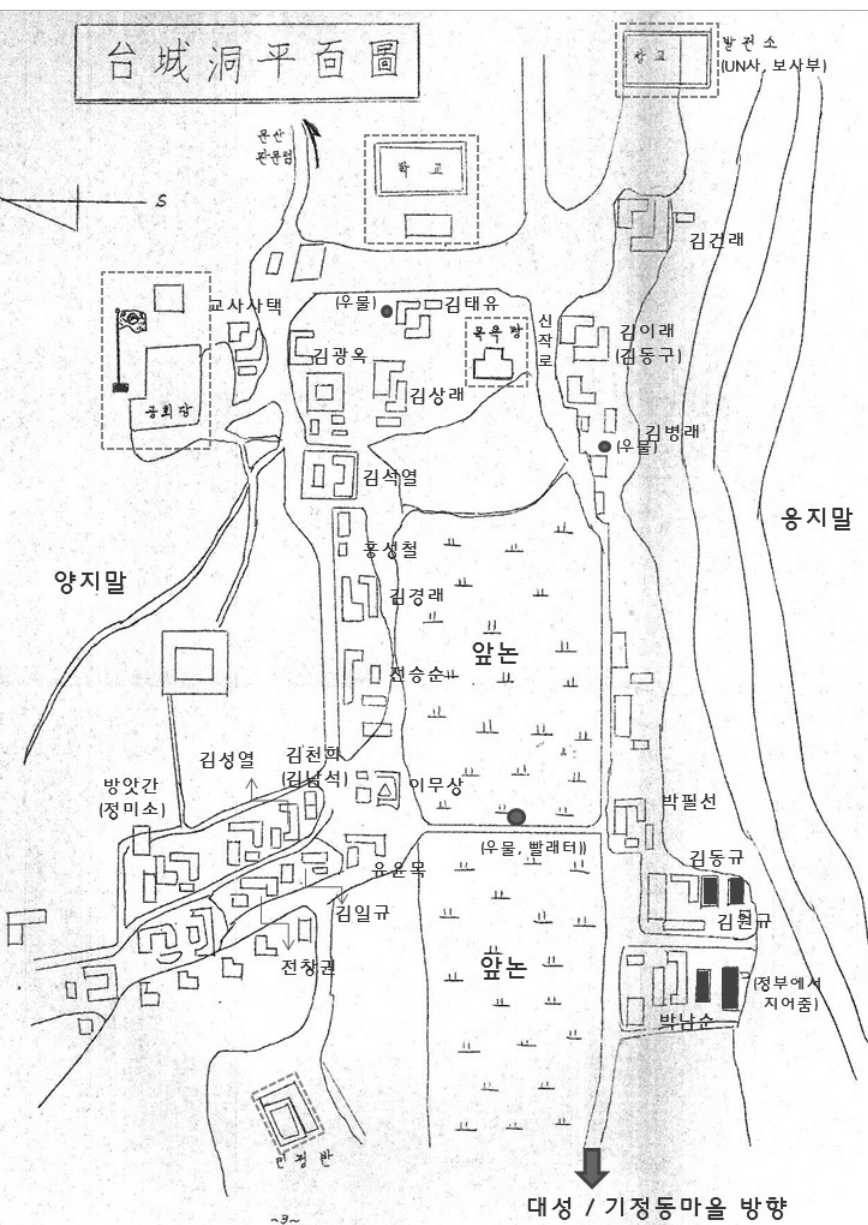
관람객은 민정반(JSA)과 동행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의 생업활동, 혼인에 따른 남녀의 거주권 등 대성동마을의 특수한 생활문화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영위한 독특한 생활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환경을 이해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와 인터랙티브 영상을 통해 관람객은 주민들의 입장 및 시선에 몰입됨으로써 주민들이 겪어온 삶의 애환과 그의 근본적인 원인인 분단의 아픔을 느낀다.

가) 대성동마을의 지형과 역사

대성동마을은 1918년 제작된 지형도를 통해 과거 마을의 모습과 역사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이 고려시대 수도인 개성과 인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도 소급될 수 있다. 1918년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살펴보면 대성동마을 동쪽으로 구룡지(산)가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그 너머로 의주길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넓은 농경와 분지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당시 대성동마을이 소속되어 있던 조산리에는 설립된 몇 채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대성동마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18년 수치지형도



1972 대성동 개발사업 이전 마을배치도(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종합개발, 재편집)

이상 남한에서는 개성으로 왕래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개성에서 파주시나, 문산읍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파주시 버스터미널에서 대성동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간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3년부터 마을에 모여살기 시작했는데, 6

예로부터 대성동마을이 소속되어 있는 조산리는 분지천을 경계로 개성부와 접해있는 지역이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대성동에서 가장 근접한 대도시는 개성(송도)으로서 대성동과는 동일생활권이자 문화권을 형성해왔다. 대성동마을은 장단에서 개성으로 가는 의주길상에 위치해 있어 주요한 교통거점(초현참, 초현주막)으로 대성동마을과 개성 사이에는 잦은 왕래가 있었다. 개성은 마을 서쪽으로 직선거리 1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분단 이전까지만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개성에 장이 들어서면 농산물 등을 내다 팔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단 이후 더



1960년대 마을모습1



1960년대 마을모습2

년이 지난 후에도 제대로 된 집 대신 초가집이나 움집과 같은 형태의 임시주거 시설을 짓고 살았다. 이에 미군과 정부는 1959년 문화주택과 동사무소, 공회당 등을 건립하여 대성동마을은 농촌마을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성동마을의 개발 이전 모습은 1972년 대성동개발사업 이전 마을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제작된 마을배치도와 사진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사진자료를 통해 마을의 풍경 및 주민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다.

대성동마을은 강릉 김씨 집성촌으로 마을에 강릉 김씨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2대조와 13대조를 선산에 모시고 있다. 현재(2014년 7월 기준) 마을에는 48가구 51세대 208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 중 남자가 100명, 여성이 108명이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농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직 2가구가 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명 있다.

나) 대성동마을의 인문과 사회 환경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남한 내 어느 지역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은 휴전협정 당시 마을주민으로 등록되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그 이외의 주민들은 거주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군 입대를 선택적으로 행하고 토지에 대한 경작권만이 인정되어 지방세 면세 혜택 등을 받는다.

대성동마을의 주민으로 인정 되면 출입증이 발급되어 이를 통해 신원확인을 받는다. 주민들은 통일대교의 출입은 24시간 가능하고 JSA의 출입은 주간에 비교적 자유롭다.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과 같이 경호병의 호위하에 출입을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에서 제외된다.



1960년 문화주택 전경(출처:국가기록원자료, e-영상역사관)

대성동 주민의 거주권은 일 년에 240일(8개월 정도)을 마을에서 거주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 민정반에서 마을주민 인원체크를 한다. 마을주민 인원체크는 동절기와 하절기 다른 시간에 진행된다.

마을 밖에서 거주하지만 거주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군에 입대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 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 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 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안에는 초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 대성동 학생들은 대부분 문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다. 과거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 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지원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공동학군제가 실시되어 문산 등 파주 관내의 중고등학교로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가용이 있어서 마을에서 통학을 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진

표16. 대성동마을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자유마을(대성동마을)
행정 구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위 치	북위 37°56′28.03″, 동경 126°40′44.92″
생 업	농업
기 후	연평균기온 10.4℃, 강수량 1,184mm
주변 주요시설	DMZ, 판문점,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국사무소, 자유의 다리, 군사분계선
자연 환경	대덕산(大德山, 해발237m), 백학산(白鶴山, 해발229m), 도라산(都羅山, 해발 267m), 진봉산(進鳳山, 해발 400m), 덕물산(德物山, 해발288m), 군장산(軍藏山, 해발 278m), 여니산(如尼山, 해발241m), 분지천, 사천(沙川)

학을 위해서 무조건 마을 밖에 거주해야만 했다.

대성동마을에는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있고 주민이 상을 당했을 시 돕기 위한 상조회, 그리고 생산 활동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는 생업조직 등의 마을조직이 있다. 다른 농촌마을과는 다르게 외부와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대성동마을에서 마을 내 조직은 마을주민들의 자급자족적인 생활양식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

다) 대성동의 생업

대성동마을의 주요 생업인 농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농사로 대성동에서는 연간 약 2250톤의 쌀이 생산된다. 또한 마을 대부분의 농경지는 마사토로 배수가 잘되어 인삼과 콩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콩 재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군내국민학교의 학교 마크가 콩잎이었을 정도로 길다. 그 외 마을의 밭작물로는 고추, 마늘, 양파, 호박 깨 등이 있다.

6·25 전쟁 전에는 지금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가 적었기 때문에 작물을 조금씩 재배할 수밖에 없었고 논보다는 밭이 많았고 삼포밭(인삼밭)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논농사로 경작된다. 시대에 따라 기르는 작물도 변화하였다. 과거 조, 보리, 밀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성동마을의 토지는 UN군에 의해 관리되므로 주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경작권만 인정된다. 그에 따라 주민들 간의 공식적인 매매는 불가능하고 대신 주민들에게 한해서 경작권이 매매된다. 경작권은 6·25전쟁 직후 마을로 주민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부여되었다. 돌아온 주민들이 자신이 경작할 농토를 개간하면 UN군은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을 주민들에게 주었다. 에 의해 농토는 다시 들어온 주민들이 개간해서 만들었는데 당시 토지에 대한 경작권은 그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갖게 되었다.

마을 주민이 경작하는 농지 중에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농지도 있다. 이 경우 하루 전날 미리 일정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농지 주변의 위험요소를 카메라로 사전에 확인하고 다음 날 주민과 함께 농지로 향한다. 주로 인원점검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확인한다고 한다. 현재 군사분계선 지역과 가장 근접한 부분은 방축골 지역으로 이곳으로 농사일을 갈 때에는 1개 분대 정도의 병력과 함께 간다.

생산된 농산물은 주로 농협이나 정부수매로 판매되지만 현재는 마을 내 조합을 결성하여 판매하려고 준비 중이다. 마을 이름을 앞세워 마을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

은 농산물이라는 측면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파괴와는 거리가 먼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만의 생활 풍습을 영위해왔다. 과거 JSA상황은 오늘날과 같이 삼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구역에 한해 정식으로 허가를 내어 사냥하도록 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성동의 약자인 'TSD'라고 쓴 노란 완장을 차고 'TSD Hunting' 팀으로 인가 사냥을 하였다. 종종 사냥을 하다가 지정된 영역을 벗어나면 일명 '몽키하우스'로 불리는 미국영창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사냥을 하러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밭에 지뢰가 걸리기도 했다. 밀렵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이 제정된 뒤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냥허가철에 사냥을 할 수 있다.

라) 대성동의 세시풍속

대성동마을 풍속으로는 천렵이 있다. 마을 산 뒤쪽의 샘이 잘 나오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연못이 있다. 연못으로 흘러드는 물이 많아 고기도 많이 있었다. 6·25이전에는 이곳에서 천렵을 많이 해먹었다. 천렵날이 되면 주민들이 밀가루나 솔 등 천렵에 필요한 물건과 음식들을 가지고 모인다. 천렵 때 잡히는 고기는 붕어, 메기, 쏘가사리 등 우리나라에서 잘 잡히는 고기들이 잡혔다. 천렵 시기는 복중에 많이 했고 주로 중북 지나 말복 전 즈음으로 잡았다. 그러나 개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연못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풍습도 마을 주민들에게서 앗아갔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꿀을 베러 갈 때 노는 '꿀단치기', 벼를 벨 때 하는 '벼뭇내기', 전쟁 놀이, '쥐불놀이' 등을 하고 놀았다. 꿀단치기는 낫치기의 일종으로 꿀을 베리간 아이들이 한 움큼씩 꿀을 모아 쌓아두고 거기에 낫을 던지는데 낫이 가장 똑바로 꽂힌 사람이 꿀단을 가져가는 놀이였다. '벼뭇내기'는 10뭇 또는 20뭇을 가장 빨리 베어 묶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벼를 빨리 베기 위해서 하는 놀이였다. 쥐불놀이는 겨울에 많이 했는데 일상적인 놀이로도 하고 8월 보름날 달맞이(추석) 때나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에도 했다.

마) 대성동 사람들의 일생의례

대성동마을 주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거주권을 인정받기란 꽤 까다롭다. 휴전 당시 마을(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직계만 거주할 수 있었다. 시집은 머느리는 주민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한 딸은 떠나야하는 등 거주권 심사가 까다로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의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여자가 시집을 와서 대성동마

울에서 살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곳 대성동 출신 마을 처녀와 결혼을 해도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병역 면제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라 대성동에서는 혼인식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대례를 치르고 혼인 당일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에는 신랑이 동네 처녀에게 장가들러 왔을 때는 '재꾸러미 던지기'라 하여 재를 봉투에 담아 두었다가 신랑에게 던지는 풍습도 있었다. 또 혼인 후 첫날밤을 보내는 신랑 신부를 엿보는 풍습도 전해졌다. 장가를 든 후 며칠 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처가에 가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신랑을 매달고 "너 뭐 먹었어? 너 신부집에 와서 뭐 먹었냐? 하나씩 대라."며 신랑의 발바닥을 때린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그 음식을 하나씩 그대로 내다 놓아야 한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과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 저녁 만신을 불려 '자리건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자리건이는 만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망인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주로 망인이 상주들에게 하는 말을 전한 한다. 요즘에도 자리건이 하는 집이 간혹 있다. 대성동이 태성으로 불렸을 때는 '나리굴 무당'이라고 하는 대성동마을의 단골 만신이 자리건이를 했다. 나리굴 무당은 이웃의 마을 나리굴에 사는 만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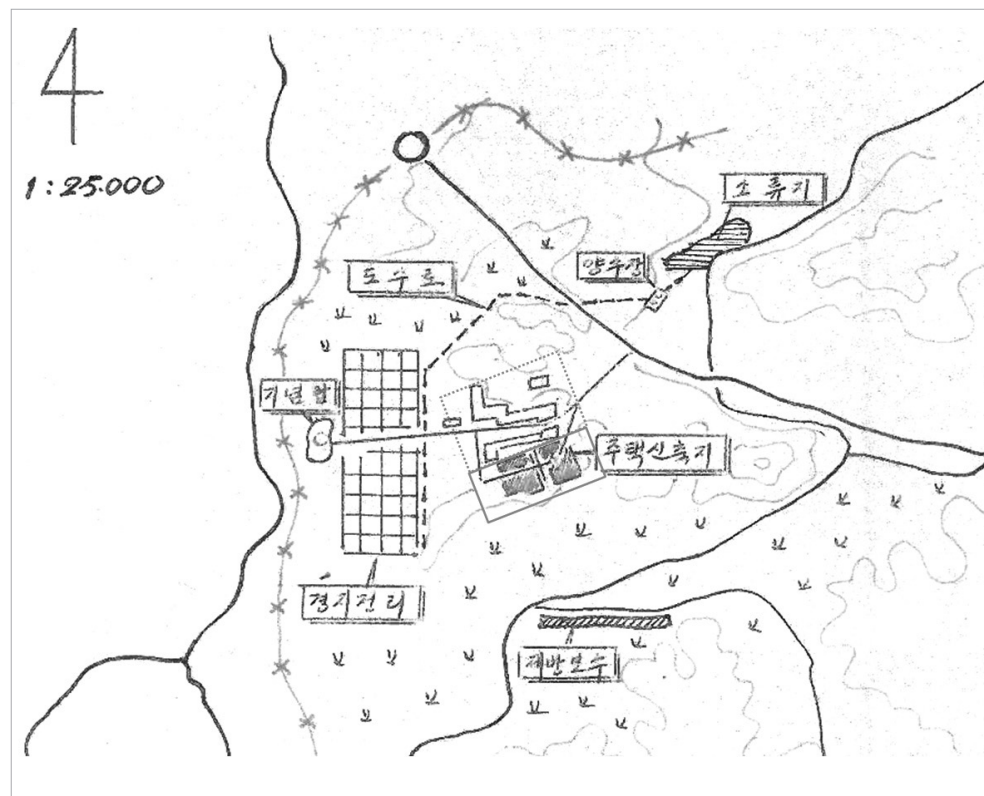
또 마을 사람들은 만신의 굿을 통해 치병을 염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 병이 아닌 경우 소위 민간요법에 의지했다. 오늘날은 자가용이 있어 주민이 아프면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해 가정에서 치료를 행했다. 예컨대 감기 걸려서 열이 나고 하면 콩나물에 파를 넣고 끓여서 먹고 땀을 내면 낫는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서 먹었기 때문에 흔했기 때문이다. 또 배탈이 나면 옛날에는 양귀비를 길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끓여서 먹으면 나았다. 양귀비 중에서도 특히 대를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양귀비를 키우면 걸리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장염 같은 것에는 양귀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마을 내에는 보건소 등의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경비대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경비대대 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다. 또 응급 상황인 경우 출입허가를 받으면 외부의 구급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에는 이렇게 군의 협조로 빨리 후송 될 수 있지만 전쟁 중에는 군에서도 물자 등이 부족하여 마을 내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후송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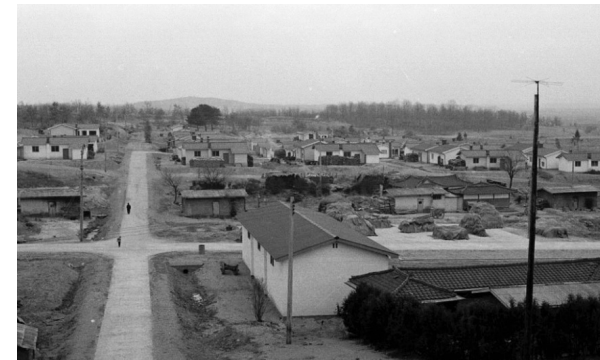
바) 대성동의 개발계획

1971년 시작해 1972년 완료된 대성동 종합개발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대대적으로 재편성·배치되었다.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대북선전 목적의 주택신축, 국기계양대 설치 등과 주민의 자립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인사에게 완공식을 기념해 발송한 안내장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한편 1979년에는 대성동종합개발이 재개 되어 그 다음해인 1980년 12월 준공되었다. 이 개발은 북한 기정동마을(평화의마을)에 대응하여 대북 선전목적을 위한 마을현대화와 1971년부터 추진해왔던 DMZ 주변의 농지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에 그 중요도를 두고 있었다. 1971년 개발을 통해 구마을과 신마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대성동마을에는 1979년 종합개발을 통해 구마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구마을 자리는 격자로 구획하여 주택필지와 공공필지가 조성되었다.



1972 대성동 개발사업 개발계획도(출처:국가기록원, 1972 대성동종합개발)



1973년 대성동마을 전경



1981년 대성동마을 전경

1980년에는 바둑판식 도로망과 상하수도시설, 각종 공공건물 등의 인프라시설과 현대식주택이 조성되었다. 또한 주변의 광대한 농경지가 경지 정리되면서 마을주민들은 대규모 영농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접경지 마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시책으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종합개발을 통해 마을이 국가적 계획에 따라 전면적으로 배치되면서 구축된 마을 인프라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대성동종합개발을 통해 대성동마을은 남한 내 여느 농촌마을의 모습을 벗고 현대화된 농촌마을로 재탄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양식도 재편성되었다.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대성동종합개발은 마을 내 여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끼쳤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주거하는 주거 시설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해 거의 모든 주택 시설이 파괴되자 앞서 언급했듯 마을 주민들은 움막이나 토굴을 짓고 살았다. 1959년에 이르러 보건사회복지부와 미국 USOM에서 무상으로 문화주택과 가옥에 사용할 기와를 제공했다. 문화주택의 경우, 부실 공사와 농가에 맞지 않는 설계를 이유로 주민 측이 입주를 거부하였고 보수공사를 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주민들은 1972년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의 전통 가옥과 문화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지금 대성동마을에 남아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1980년에 지어진 것으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종합개발의 일환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남아 있던 전통가옥(기와집, 초가집 등)과 새마을주택이 모두 헐리고 마을 전체에 현대식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민정반(JSA)과의 동행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관람객은 동시에 그들의 삶과 문화가 이렇게 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남북한 분단이라는 대치의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나.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곳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 사례 1(출처:강화호국박물관)

6·25전쟁 이후 최초의 평화지역이자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등 대성동이 갖는 역사지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영상을 통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대성동마을이 남북 교류 및 화해의 장으로서 처음 물꼬를 튼 1984년의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개성공단이 남북 평화 통일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그 지리적 범위를 대성동마을로 확장하여 대성동마을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의 기점에 있음을 역설한다.

1984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중부지방에는 수재가 발생하였다. 이 수해는 사상자 70여 명, 재산피해 670여 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설상가상으로 수해복구가 이루어진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말 다시금 집중호우가 덮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은 남한의 수재민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자 뜻을 밝혔다. 이에 남북적십자 간 실무접촉이 이루어졌고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 진행되기로 합의되었다. 총 6일의 인수 기간 중 판문점을 통한 인수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는 대성동마을 공터에 설치된 남한 적십자 임시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대성동마을은 당시 냉전의 와해로 인해 싹튼 평화적 분위기에서 남북 간 화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편 대성동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한민족이 함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같은 해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과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되었다. 그 후 약 3년 뒤인 2007년 6월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10월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는 후 점진적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남북한의 공동 협력의 장인 개성공단은 대성동마을에서 공단 전체 모습이 보일

정도로 마을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에 따라 훗날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되어 이러한 협력의 폭이 넓어져 개성공단이 확대되면 인접하고 있는 대성동과 기정동마을도 평화와 상생의 마을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대성동마을이 위치한 지정학적 공간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는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시 사례2(출처:강화호국박물관)

(5) 200m 눈앞의 군사분계선 (팔각정→국기게양대)

① 전시 개요

불과 2백 미터 앞에 군사분계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북한군 초소 및 마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팔각정을 통해 분단과 휴전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관람객이 팔각정, 마을길, 국기게양대로 이어지는 안보투어길을 따라 걸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

한 경각심이 자연스럽게 일게 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인위적인 전시 공간이 아닌 실제 군사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팔각정과 국기게양대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극화된다.

한편 안보투어길과 마을 곳곳에 QR코드 및 NFC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관람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 방문객은 각자 소유한 스마트 폰을 활용해 QR코드를 스캔하여 저장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환경에서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그래픽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방탄유리의 팔각정



대성동 팔각정(1980년 완공)



방탄유리 시공 후 대성동 팔각정(출처:연합뉴스)

망원경으로 북한군 초소와 기정동마을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또한 투명 모니터와 증강현실을 팔각정 내에 구축, 구현하여 전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설명을 보충한다.

전시 공간인 팔각정은

1980년 12월 18일 파주시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마을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이 지점은 마을 지명의 유래가 된 대성(台城)이라는 토성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팔각정에서는 망원경 없이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의 송악산까지 전망할 수 있다.

팔각정은 1980년 설립될 당시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자(亭子) 형태로 만들어졌다. 30년 후인 2010년에는 남북한의 긴장 상황에서 총격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2층 북측 방향 전면부 3개면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었다. 이 때 설치된 방탄유리와 적군이라는 인식으로 강화된 방탄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희뿌연 북한의 모습은 분단의 실상을 실감하게 하는 동시에 불투명한 남북한 관계를 상기시킨다.

한편, 팔각정은 동명(同名) 마을인 제주도의 대성동마을과 자매결연이 맺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1993년 5월 13일 서부전선 최북단인 파주 대성동마을과 최남단인 제주도 남원읍 대성동마을은 동명을 인연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결연식에서 두 마을 대표들이 지역 특산물을 서로 교환하고, 비록 한자와 그 의미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동명인 인연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두 마을 간의 돈독한 관계 유지를 다짐했다.

나. 같은 하늘아래 2개의 깃발

국내 최대 높이의 국기게양대와 세계 최대의 높이인 북한 인공기를 동시에 조망하며 대성동마을을 수호하는 민정반(JSA)을 견학한다. 보다 높은 하늘을 향해 경쟁적으로 치솟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기를 통해 현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인지한다. 같은 바람에 말없이 펄럭이는 두 국기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 의해 서로 다른 위치에 걸려있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분단 인식은 강화된다. 또한 국기게양대 옆인 민정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정반의 역사와 주요 임무 등 대성동마을에서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본다.

대성동마을의 게양대를 방문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람객은 게양대에 내재된 남북한의 심리적 대결 구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은 오늘날 점점 더 심화되



공회당 옆 국기게양대(출처:국가기록원 자료, 1975년)



현재 국기게양대(2014)

대성동마을 국기게양대

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남북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며 이는 정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연장임을 이해한다.

국기게양대는 초기 대성동 공회당 언덕 위에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으나,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발 공사 중인 1980년 12월 18일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85m의 높이로 국기게양대는 설립되었으나 국기봉이 짧아 국기 게양 및 하기 시 국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국기봉의 높이를 약 15m 더 높여 99.8m로 보강하였다.

이처럼 국기 손상의 문제로 국기게양대를 증축하여 군사분계선 너머의 북한에서도 충분히 잘 보일 만큼 높게 설치된 것이다. 국기게양대에 걸린 대형의 태극기는 북한의 인공기와 마주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역시 남한을 의식하여 높게 인공기를 게양했다. 기정동마을의 인공기 게양대도 원래는 80m 남짓의 높이로 설치되었으나, 남한의 게양대가 보수공사를 마쳐 더욱 높아지고 난 1년 후 재공사에 착수했다. 1982년 2월 16일 북한은 약 165m 높이로 시공한 첨탑에 가로 30m, 세로 15m의 인공기를 게양했다.

(6) 인류평화의 세계유산으로(마을회관)

① 전시 개요



현 마을회관

본 전시에서는 인류평화의 문화유산, DMZ 청정자연 생태 등 대성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국내외 홍보한다. 대성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고 실제 등재를 위한 노력과 실현을 설명한다. 또한 전시공간에 평화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열정을 결집하는 온·오프라인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성동마을

이 갖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즉, 본 전시에서는 대성동마을이 분단의 상징에서 인류평화의 상징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전시한다. 마을회관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회관 일정 공간에 대성동마을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성동마을 브랜드 숍(Brand Shop)을 계획한다. 브랜드 숍에서는 대성동마을의 특산물 외에도 대성동마을의 역사와 상징적 의미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문화 등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이는 대성동마을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는 대성동마을 농가와 연계한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대성동마을에서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우선 마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방문객의 체류에 필요한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의 인프라를 마을 주민들이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은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체류형 농촌프로그램은 현재 다양한 농촌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형태이다. 또한 대성동마을에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에게 대성동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다면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방문객은 실제 마을 주민의 생활에 침투·편입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최근 신축되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성동마을회관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북쪽이 바라다보이는 옥상의 전망대를 또 하나의 전시 공간 및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대성동마을회관은 대성동마을 제1차 종합개발이 진행되던 1972년에 신축된 것으로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e-영상역사관에는 당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이 벽돌을 나르며 도왔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 마을회관이 대성동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마을회관은 1997년 신축되었다. 회관 내에는 마을식당과 구관장, 노인정, 회의실과 롯데시네마(영화관) 등의 시설이 구축되어 현재까지 마을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이루어 졌으며 옥상에 전망대가 있다. 이 전망대에서는 서쪽으로 개성공단과 기정동마을, 북서쪽으로는 개성의 송악산이 바라다보인다.

② 전시 프로그램(안)

가.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의 유산으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대성동마을이 지닌 상징적 가치와 DMZ를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본 전시는 대성동마을 주변의 식생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마을 자원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역설함과 동시에 세계의 자연, 문화,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홍보한다.

DMZ 지역에는 약 반 세기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DMZ 지역에는 식물 2237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파충류 31종, 어류 143종 등 2710 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DMZ 지역의 산에는 떡갈나무와 신갈나무의 2차 식생과 물억새·억새초지가 발달해 있고 계곡에는 달뿌리풀과 갈대가 풀 바다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사향노루, 산양, 삥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생존하고 있으며 장단반도 일원에는 두더지, 오소리,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멧밭쥐, 멧토끼 등의 동물과 법적보호종인 삥이 발견되고 있다.

대성동에서는 집박쥐의 분(糞)과 오소리가 서식하고 있는 굴이 발견되었고 삼림지대에 흰 넓적다리 붉은 쥐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자연습지는 조류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매년 계절에 따라 철새들이 머물렀다 간다. 대성동 야산에는 딱새류를 비롯하여 빠꾸기류, 딱따구리류, 까마귀류가, 경작지 부근에는 할미새류, 멧새류, 도요새류 등이 관찰된다고 한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인근 농경지에는 1966년 2월과 1979년 1월에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따오기” 1개체가 관찰되었다. 대성동마을 저수지에서는 철마다 다른 조류가 머물렀다 간다. 여름철에 백로류인 덩불해오라기, 가을부터 겨울, 봄에 오리류, 겨울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마을 신설저수지와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소수로(小水路)에서는 피라미, 꼬리, 누치, 참마자, 미꾸리, 동자개, 얼룩동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성동마을의 구성저수지와 임진강 지류인 사천수계의 수로(水路)에는 피라미, 꼬리, 붕어, 묵납자루, 점줄종개, 동자개, 얼룩동사리, 잉어 등이 공존하고 있다.

대성리에는 주로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특히 해발 50m미만인 군내면 대성동 주변의 구릉지에는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상수리나무 군락은 숲지붕층

(林冠層)에 우점하고 있고 키가 작은 나무층(관목층)인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개웃나무, 보리수나무, 붉나무, 노린재나무, 회잎나무 등의 식물군락과 함께 생육하고 있다. 숲바닥에는 상수리나무의 실생(seedling)을 비롯하여 낙엽활엽수림을 구분하는 진단종(diagnostic species)인 반상록성 초본 노루발풀이 존재한다.

2010년에는 새로 4목 22종의 곤충이 발견되었으며 멸종 위기의 2급 곤충인 애기뿔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와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도 그 중 하나이다. 이처럼 대성동 주변 DMZ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식물들의 낙원으로 계속해서 멸종 위기의 생물들이 관찰되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이다.

그에 따라 대성동 주변의 동식물 서식지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남한 정부는 현재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파주지역 DMZ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DMZ 세계평화공원 파주유치촉구 파주시민서명서’를 통일부에 전달해 파주지역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전시는 대성동 주변 DMZ의 청정 자연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자연 유산임을 알린다.

한편 대성동마을 주변에는 자연 유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적이 발견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와 대치하던 4세기에서 5세기대 근초고왕의 북진정책 때 전략적 요충지인 대성동 주변에 축조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성부터 고려시대 용문청동 재떨이와 조선시대 토기, 기와, 도자기, 맷돌 편에 이르기까지 역사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마을 주변에 편재해있다. 또한 강릉 김씨의 집성촌답게 마을에는 강릉 김씨의 선조들 묘역이 산포되어 있다.

나. 특산물 판매장

청정자연에서 생산된 대성동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판매한다. 특산물 판매는 마을을 대표하여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 관람한 후의 기념품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관람객은 특산품을 통해 마을의 청정 자연환경을 상기하게 된다. 또한 중간단계 없이 관람객에게 판매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 기여를 한다.

한편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전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이를 통해 대성동마을의 이미지가 형상화 되고 그에 따라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정

착된다. 이는 마을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성동마을만의 특성 상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대성동 주민들은 현재 “DMZ 대성동”이라는 상품명으로 마을에서 재배한 고춧가루, 참깨, 녹두, 개성인삼, 도토리묵 가루, 된장, 들깨, 메주, 참기름, 백태, 서리태를 판매한다. “맑은 물”, “맑은 공기”, “JSA청정농산물”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및 인간에 유해한 재배 과정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차별화한 것이 전략이다. 현재 주민들을 대표한 대성동 부녀회를 생산자 명으로 등록, 부녀회를 중심으로 관리 및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산물 판매체계는 아직 온전히 구축되지 않고 비정기적이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 회관 내 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특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대성동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도 동시에 농산물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한다. 경기 과주 통일마을 홈페이지(<http://uni.invil.org/>)의 ‘특산물 자랑’ 게시판에서는 통일마을의 특산물뿐 아니라 ‘대성동직거래농산물’이라는 항목을 통해 대성동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식품영양학적 정보들을 추가하여 농산품 전시공간으로 형성한다.

과주 통일마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성동의 농산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한다.

비무장 지대 내 마을인 대성동의 자연의 빛으로 직접 말린 태양초 고춧가루는 세계유일의 DMZ안의 무공해 청정지역인 대성동마을의 특산품중 하나로 이상적인 기후조건과 무공해 퇴비사용으로 생산한 공해 없는 고추로서 한국 전래의 매콤하면서 달달한 고추 맛이 아주 뛰어나다.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며 붉은 빛이 고와 김장용, 매운탕, 실고추, 고추장용으로 최상품이다.

대성동마을의 또 하나의 특산물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 생산된 무공해 참깨이다. 참깨에는 50% 내외의 기름과 22% 내외의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칼슘과 인 등의 중요한 영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세사민, 세사몰린 등의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국민보건상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붉은 깨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며 무기질과 칼슘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성동 참깨는 단백질의 질이 매우 우수하여 구성 아미노산이 동물성단백질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등 아주 우수하다.

비록 대성동 주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었기에 생산량은 적지만 대성동은 참깨 재배의 적지로서 임진강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재배되는 대성동참깨는 기름이 많이 나고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으며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있고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생산된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만드는데 직접 짜서 담았기에 고소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대성동 참기름은 사천강변의 풍부한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대성동 참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되는 무공해 참기름이다. 참깨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으므로 콩과 맞먹을 정도로 영양가가 있다.

한편 마을에서 생산된 녹두는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다. 녹두에는 철과 카로틴이 많이 있다.

대성동마을은 인삼을 키우기에 지리적 여건이 적합하다고 한다.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좋고 바람 역시 잘 통하고 토양의 물 빠짐도 좋다. 그래서인지 인삼의 향 또한 월등히 진하다고 한다. 지금은 생산 농가가 적어 소량의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나 점차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

인삼은 뿌리가 마치 사람 모양을 닮은 식물로 잎은 가을에 말라죽지만 뿌리 부분은 살아 있는 다년생 반음지성의 속근초이다.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A.Meyer(1893)인데 어원을 보면 (pan:모든것), (axos:의약)으로 만병통치약으로 불린다.

인삼은 북위 30°~40°지역에서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 우리나라는 33.7°~43.1°에서 재배되며 38°선(DMZ)상에 자라잡고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그 인삼을 예로부터 유명한 개성인삼이라 하였고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과거 인삼을 재배하여 개성 시내에서 팔았다고 한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생한 도토리를 주워 햇볕에 말린 후 껍질을 까서 도토리 열매를 갈아서 보자기에 쪄 다음 그 앙금을 물과 섞어 다시 그 앙금을 가라 앉힌다. 이를 3-4회 반복한 후 밑에 있는 앙금을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 도토리묵 가루이다. 가루가 희며 묵을 만들었을 때는 묵의 색이 검붉은색이 된다. 대성동 도토리묵가루로 만든 도토리묵은 쫄쫄하고 그 맛은 더없이 좋다.

장단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콩을 사용하고 전통의 재래 방식으로 만들어 구수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옛 고향 된장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성동마을에서도 질 좋은



대성동마을의 특산물, 들깨(출처:경기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



대성동마을의 특산물, 백태(출처:경기 파주 통일마을 홈페이지)

콩이 생산된다. 된장에는 비린내를 없애는 교취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된장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여러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나 게 등 비린내 나는 생선 요리와 일부 조수육 요리에 된장을 섞어 쓰면 비린내를 없애고 맛을 돌출 수 있다.

청정 지역인 비무장 지대(DMZ)의 맑고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된 무공해 들깨도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들깨는 색깔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흰색인 흰깨와 검은 색의 검은깨, 갈색인 들깨로 나눈다. 이들은 성분 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칼슘 성분에서는 검은깨가 1100mg으로 매우 많으며 흰깨가 630mg으로 들깨에

비해 많이 들어 있다. 한편 잎은 장아찌, 튀김 등의 조리에 이용되므로 채소로서의 가치가 있다. 들깨잎 100g중에는 비타민 A가 20,000 I.U., 비타민 B1 0.01mg, B2 0.4mg, 니아신 0.5mg, 비타민 C 85mg이 들어 있고 비타민 E와 F가 들어 있는 우수한 식품이다.

마을 주민들은 장단 지역인 비무장 지대 내 대성동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콩을 가마솥에 넣고 장작으로 불을 때 삶은 콩을 절구에 찌서 순수 만드다. 이는 옛 우리 조상들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것이다.

메주의 기원은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만들어져 장류를 만드는 기본이 되어왔다. 메주를 만드는 방법은 잘 여문 콩을 선별하여 물에 불린 후 → 삶기 → 절구에 찧기 → 모양만들기 → 걸말림(2~3일간) → 재우기(짙을 포개어 씌움. 4주) → 햇볕에 말리기 → 다시재우기(2개월) 순으로 한다. 메주가 만들어 지는 원리는 메주덩이를 따뜻한 곳에 보관하는 동안 벧झ이나 공기 중의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접종되어 발육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와 전분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콩의 성분을 변환시킨다. 이렇게 되면 간장이나 된장

등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미생물이 더 번식하여 메주가 완성된다.

옛 장단소학교의 모표(모자에 달린 학교 마크)도 콩잎이고 그 당시 지리 부도(사회 교과서)에도 소개 되었다고 한다. 비무장 지대(DMZ) 내 있는 대성동마을은 장단 소학교까지 직선거리로 4km이며 이북5도 장단 군민회기 또한 콩잎이다. 이를 통해 장단 지역의 콩이 과거부터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대성동마을에서 재배한 백태는 비록 소량 생산으로 한정 판매되고 있지만 알이 크고 눈이 뚜렷하고, 타 지역 콩에 비해 구수한 맛이 자랑한다.

또한 콩은 일찍이 오곡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전분식품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보완 공급하는데 안성맞춤이다. 또한 콩은 식품으로의 기능외에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기온의 차가 크고, 토양의 물 빠짐이 좋은 DMZ 대성동마을에서 재배한 서리태는 알이 크고 눈이 뚜렷하여 타 지역에 비해 구수함이 더하다.

이렇게 대성동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마을의 청정 환경에서 마을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맛이 우수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전시하고 특산물 판매장에서 실제 판매한다. 이렇게 마을회관 내 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시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대성동마을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홍보한다.

6) 대성동마을 체험프로그램 제안

대성동마을과 그 주변의 전통마을들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여느 농촌 시골마을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북한에 속하는 개성 인근마을로 나뉘는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던 곳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개성을 지나 의주로 가는 의주길(1번 국도)에 인접하여 있어 주변 도시와의 교류도 어렵지 않은 지리적 이점이 많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곳은 타의에 의해 정치적, 군사적 특수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대성동마을은 타의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을 주민들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UN의 관할 하에 놓인 여러 가지 불편한 행정사항 등 여러 가지 고충을 감내하며 지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정부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지원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대성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DMZ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60~70년대 북한과 치열한 체제 경쟁 하에 놓인 정부로서는 서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바라다 볼 수 있는 대성동마을이야말로 남북의 체제우월과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대성동마을의 배치와 주택 변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변화해 왔다. 1960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열세를 보인 우리나라는 당시의 실정에 맞게 1959년 UN군의 협조 속에서 문화주택과 공공시설을 대성동마을에 보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성동마을은 자연환경과 지형지세에 순응한 전통마을이었고, 주택은 대부분 초가집, 기와집이었으며, 농업은 대부분 인력과 우정에 의존하는 열악한 농촌마을이었다. 1970년 전국적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대성동마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대성동마을의 경우 주변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와 농기계 보급, 새로운 주택단지(선전마을) 조성 및 ‘새마을주택’ 공급,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때 지어진 ‘새마을주택’ 역시 1959년 지어진 ‘문화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멘트블럭조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열악한 주택으로 냉난방에 매우 취약했으며, 당시 한 가족이 6~7명, 많게는 10명까지 되었던 농촌가족에 비해 너무도 협소한 15평 이하의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이는 빠른 시일에 성과를 보아야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뒤지지 않기 위해 겉모습에 치중했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성동마을에도 현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성동종합개발’ 덕분이었다. 대성동 주변 농경지(DMZ 내 유희지) 개발과 농지정리를 통해 대단위 영농,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관개수로와 농업용저수지 등이 확보되었다. 기존 구마울과 신마울로 나뉘어 있던 대성동마을은 마을현대화계획에 따라 구마울의 초가집, 기와집과 신마울의 새마을주택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를 대신해 현대식주택이 모든 가구에 보급되었다. 또한 모든 주택이 북한을 향해 서향을 하는 현대화된 선전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1980년 현대식주택이 보급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마을주민들 대부분은 아직도 이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간 가족 수의 변화(초창기에는 1가구당 보통 6~8명 내외에서 최근에서 2~4명으로 줄어들었다. 부모들이 별세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거나 도시생활을 병행하면서 거주인원은 중장년 부부들이 주를 이룬다.), 주생활 양식의 변화와 현대화된 시설확충(각 세대별 개인차량, 농기계 등이 보편화 되었고, 예전의 장작아궁이에서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최근에는 태양열발전을 이용한 난방이 보편화되고 있다.)으로 마을의 공동창고와, 마을회관 등의 공동시설과 가구별 대형창고

(주차, 농기계보관 등) 등이 다수 보급되면서 잘사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대성동마을의 현대화 과정은 마을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대성동마을에 대대로 내려온 마을환경과 주거·생활문화는 급속히 사라지는 개기가 되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곳 대성동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와 살기 어렵고, 마을이 생겨나면 서부터 살아온 원주민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기억과 소중히 간직해온 생활용품들 속에서 예전 대성동마을의 모습과 문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시설물(북한 가장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팔각정, 1959년 건립된 공회당, 1972년 마을창고, 우리나라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국기계양대, 인근의 관문점과 관문교)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대성동마을의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인문적, 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 이후 대성동마을에 민간인이 모여 살면서 이 마을은 ‘자유’의 마을’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놓인 북한의 기정동마을은 ‘평화’의 마을’로 불리고 있다. 삼엄한 군사적 대치가 엄연한 상황 아래서 ‘자유’와 ‘평화’는 이곳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대성동마을, 더 나아가 한민족이 이루어야할 궁극적 목표로 다가온다. 동독과 서독의 접경지역과 접경지 마을처럼 향후 통일시대의 상징적 마을로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의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을 지금부터 발굴하고 보존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성동마을의 변천과 현재의 주택들 모습,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기정동마을과 개성 송악산, 북한 인공기 등은 북한을 가장 지근거리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일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분단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에 대성동마을과 주택, 공공시설물 등은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가 살아 있는 유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마을을 가꾸고 알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성동마을 체험루트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대성동마을 체험 대상

· 자유와 평화 : 마을의 역사와 의미 있고 이야기 거리가 있는 주택 및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이를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이 주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관람코스 개발.

체험 대상	전시주제
1959년 공회당(자유의 집)	• 분단 이전 대성동마을 역사 • 분단 이후 유엔군이 관할하던 치외법권 지역 • 당시 대성동 주민들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회고
1972년 마을창고	• 새마을주택 조성과 대성동마을의 개발 • 새마을운동과 조국근대화사업의 결과물 • 잘사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1980년 전시주택	• 80년대 북에 대해 우리의 체제와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현대식 주택(전시주택) (그림 같은 이층집, 발코니, 삼각지붕 등 우수한 외관) • 웰빙마을·부농마을(청정 자연환경과 특산물)
태성과 팔각정	• 마을의 지명유래가 된 삼국시대 토성인 '태성' • 바로 앞에 바라다 보이는 북한의 기정동 '평화의 마을' 체험
마을회관 옥상 망원경	• 대성동마을 한번에 둘러보기 • 저 멀리 개성의 송악산 체험
국기게양대, 민정반	• 한민족이지만 분단되어 살아야하는 우리민족의 비극 • 평화와 자유의 중요성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다시 느끼기

(2) 대성동마을 체험을 위한 공공시설 재활용 방안

① 공회당(자유의 집) :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회당 건물을 정비하여 마을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들 역시 외지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마을의 역사와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해줄 장소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공회당은 1959년 지어진 건물로 마을의 역사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건물로 건축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향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관리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마을역사 : 대성동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마을 역사관

나. 반공교육 및 통일교육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공과 통일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음

② 1970년대 마을창고 : 1972년 대성동개발 당시 지어진 건물 중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당시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대성동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로, 새마을운동 시기와 겹쳐져 있다. 당시로서는 마을의 유일한 공동창고로, 가을걷이 이후 추곡수매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를 기억하는 마을주민들에게는 공회당과 더불어 마을의 상징적 장소이자, 외지인에게는 1972년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건물이다. 그 활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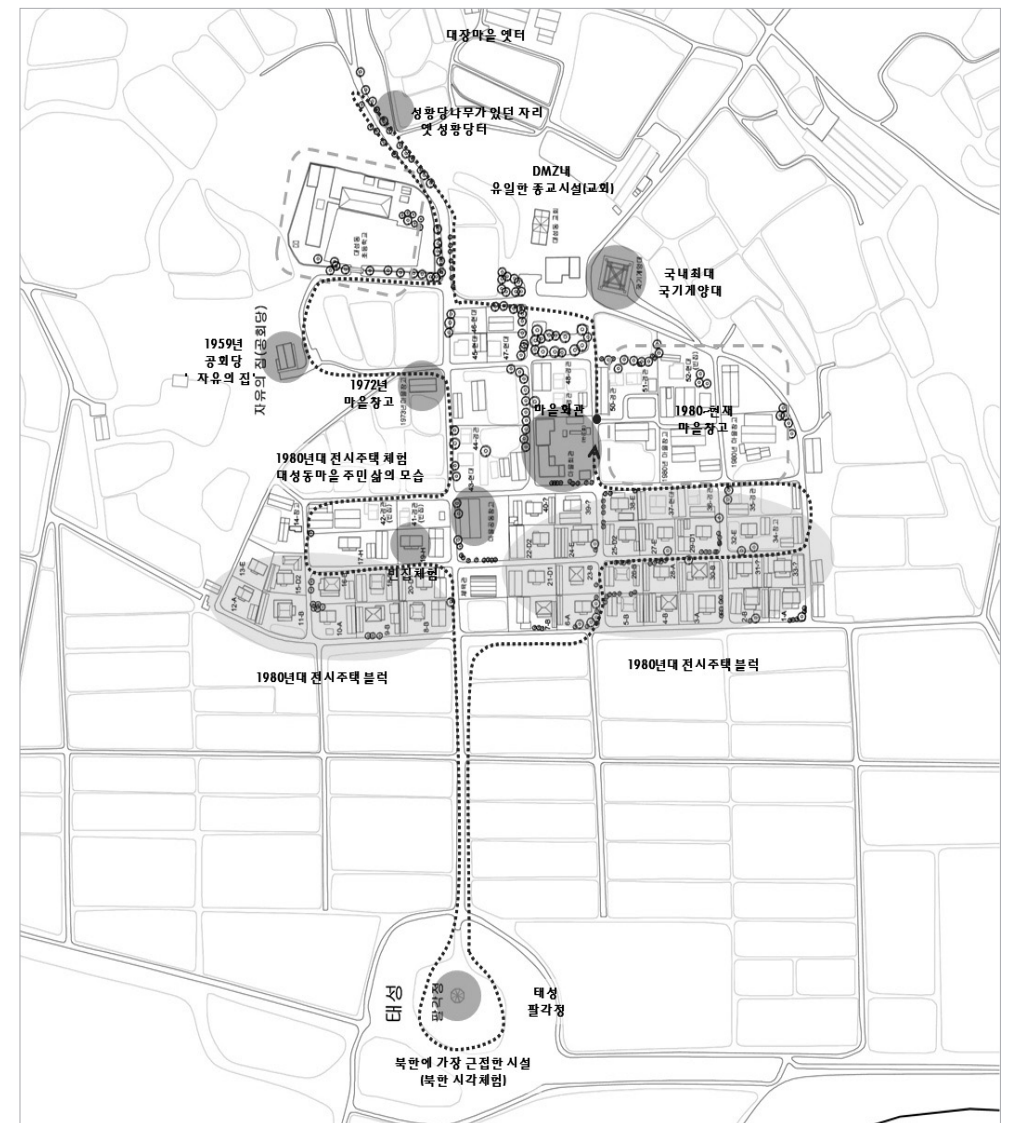
가. 대성동마을 친환경 농업현황 전시

나. 마을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농기구 전시

(3) 체험 루트 개발

각 주제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동선과 볼거리, 체험 중심

마을입구 성황당터(마을의 역사 인식) → 대성동초등학교(미래 통일의 주역) → 공회당(1959년 분단 직후의 상황과 마을의 역사) → 마을창고(새마을운동과 잘사는 농촌마을) → 전시주택 일곽(최북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삶 엿보기) → 태성과 팔각정(좀 더 가까이 북한을 체험하기) → 마을회관(38선을 넘어 개성으로) → 국기게양대(민주, 자유 대한민국 다시 느끼기)



10-4 문화자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례

- 철원두루미 마을과 한국 DMZ 평화 생명 교육마을, 영월박물관 교육특구 -

1) 머리말

과주 대성동마을 문화자원의 활용과 운영을 위하여 연구팀은 대성동마을과 유사한 환경을 지닌 강원도의 철원두루미 마을과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을 선정하여 2014년 11월 4일(화)부터 11월 5일(수)까지 1박2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1박 2일간 영월박물관 고을 특구를 현지 조사하였다. 이 벤치마킹은 두 마을에서 어떻게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조사에서는 두 마을의 시설 현황과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파악한 후 과주 대성동마을에 적용하여 마을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강원도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철원군 철원읍에 위치한 대마1, 2리로 신철원에서 서북쪽으로 15km, 휴전선과는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남쪽으로는 철원군 월하리, 서쪽으로는 경기도 연천군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민통선지역으로 안보관광지가 백마고지 전적비, 월정리, 노동당사, 철의 삼각전망대 등이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²⁸⁷⁾

(1) 배경 및 역사

두루미평화마을은 6·25전쟁으로 지뢰밭과 황무지가 된 민통선 지역을 1968년 국방력 강화 대공 심리전 식량증산 목적을 가지고 피와 땀으로 개척한 향군 마을이다. 개척 당시 낮에는 농토에서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면서 마을을 개척하였다. 6·25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것과 같이 강인하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이다. 두루미평화마을은 정부에

서 국방력 강화와 식량증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인 이스라엘의 기부스 농장을 견학 후 방공정신이 투철한 재향군인 150명을 1967년 2월 가입주시킴으로써 두루미평화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루미평화마을은 옛 철원의 곡창지대로 전쟁 전에는 북한에 속하였으며 평지로써 기름진 땅이었으나 25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관계로 거목이 우거져 있었고 휴전선 근방에서 해마다 산불을 놓아 동식물들도 살수 없는 땅이었다. 또 이곳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으로 양측이 수없이 많은 지뢰로 뒤덮인 땅이었으나 두루미평화마을의 초기 개척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과 함께 지뢰를 제거하고 거목을 제거하면서 이룩하였다.

두루미평화마을의 초기 주민들은 천막생활을 하면서 국수 덜냉이(국수를 물에 불린 것)를 먹어가면서 작업하였다. 150명이 15개조(각조 10명)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1968년 8월 30일 입주 후 약 3년간은 공동 농사를 지었으며 3년 뒤부터 개인 분배를 시작하여 8년째 되는 해는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두루미평화마을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큰 마을을 형성시켰다.

(2) 마을 전통생활

두루미평화마을은 1968년에 생긴 이래 척사대회, 입주기념식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 떡 매치기, 음식경연대회, 널뛰기, 투호, 팔씨름 등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잊혀가는 전통놀이를 복원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있다.

이 마을은 또한 4월말에서 5월 초에 행해지는 노인축제를 통해 경로사상을 증진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인 경로사상과 농악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노인잔치에서는 묘장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공연과 절을 하는 행사를 통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두루미 평화 마을회관 전경

287) 이 원고는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web 사이트인 <http://dmz.invil.org/>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였다.



두루미평화마을 개척비

있다. 떡 메치기를 하면서 백마고지 오 대쌀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의 주민은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달리 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인구통계연보에서도 인구 구성비가 다른 철원보다 젊은 편으로 단합, 화합과 협동이 잘되는 마을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촌 현실과 달리 마을 일 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마을이다. 두루미평화마을은 10대 청소년

들이 성인이 될 때 쯤, 두루미평화마을이 통일시대 중심적인 지역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두루미평화 마을은 주민들의 단합을 위하여 줄다리기, 축구, 홀라후프, 피구 등의 체육행사를 매년 갖고 있으며 36년 전에 150가구가 현재의 230가구로 확대되었다.

(3) 마을시설

① 마을정보 센터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길 38번지
- 관리자 : 정보화운영위원장 이근용
- 규 모 : 20평

마을정보센터는 그 동안 정보화에 메말라 있던 두루미평화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정보센터는 인터넷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 및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두루미평화마을에 농촌지역 정보화를 전파하는 매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CD와 DVD가 구비되어 있다.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영화감상 등의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월~금 오전 09:00~오후 07:00 까지 개방되어 있어 마을주민 모두가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② 대마교회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87(2/3)
- 건립년도 : 1969.12
- 대표자명 : 임태교 목사
- 설립목적 : 영혼구원과 새로운 삶, 진실, 섬김
- 대마교회 연혁
 - 1969년 12월 설립
 - 1997년 사택 신축공사
 - 1999년 교회당 신축공사 (대지:1400평, 교회당: 200여평)
 - 2009년 11월 현 임태교 목사님 부임

대마교회는 아름다운 전원 교회로서 1969년에 설립된 후 마을 선교활동, 영혼구원, 중국 북방지역에 교회당 건축 지원, 현지 선교사 지원, 지역 군부대 선교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대마교회는 대한민국 최전방 백마고지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성도들의 협력과 피 눈물 나는 섬김의 정신은 전원교회의 모델이다. 대마교회 출신 목회자는 5명이며, 현재 교회에서 중국 북방 교회 건축 지원, 중국 선교사 지원, 군부대 선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마교회 전경

③ 두루미 평화관

- 유 형 : 펜션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3-28



두루미 평화관 및 체험관

두루미 평화관은 식당과 펜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당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기농 산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채 비빔밥, 매운탕, 된장찌개, 순두부 등의 메뉴가 있다. 두루미 평화관 식당은 산명호 청정 일급수에서 잡은 고기를 매운탕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두루미 평화관 식당은 가족적인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과 안보관광 및

체험을 하면서 영양보충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4) 교육 프로그램

① 희망의 솥대 만들기

- 목 적 : 가족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솥대를 만들어 봄
- 시 기 : 연중 가능
- 체험장소 : 두루미평화관
- 재료 및 시설 : 솥대용 긴 나무, 나뭇가지, 낫, 끌, 드릴 등
- 솥대 제작 과정
 1. 10m 정도의 나무를 골라 끝을 가늘게 깎음
 2. 미리 모형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보이며 직접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함
 3. 마을 주민들이 참가자들을 가르쳐 주면서 작업을 진행함

두루미평화마을은 홍수와 화마를 방지하는 오리 솥대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② 철새배움터

- 목 적 : 철새에 대한 이해와 탐조행사의 요점을 배우는 시간
- 장 소 : 두루미평화관
- 재료 및 시설 : 철원지역 철새학습에 관한 사진, 영상자료, 기타시설
- 체험 즐기기
 - 철원지역에 날아오는 철새에 대한 자료 준비
 - 철새모형과 이동경로, 생태를 알 수 있는 패널 등의 자료 비치
 - 사진과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철새가 없는 계절에 활용하여 청정이미지 고양과 겨울철 방문 유도
 - 탐조행사의 사전행사 성격이므로 주의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
- 의 의 :
 - 철새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행사 내용을 첨가시켜 철새 관광지로서의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
 - 철새는 청정지역이라는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므로, 향후 두루미평화마을의 이미지 홍보에 중요한 의미
 - 도전, 철새퀴즈대회, 내가 찍은 철새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

두루미평화마을은 겨울철에 두루미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두루미가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마을에서 찍은 영상자료와 사진 및 서식환경을 설명하고 생태계를 조망 하는 것으로 방문자들이 두루미, 독수리 등 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알 수 있다. 또한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하여 철새들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특히 두루미와 독수리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에 이벤트 행사로 철새종류 맞추기, 내가 찍은 철새, 철새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철새에 대한 이해와 생태를 탐조하는 행사이다. 철새의 낙원은 마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로, 철새(두루미)가 찾아오는 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을 홍보와 인지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이 행사는 이벤트적인 특성을 지니며, 특히 철새가 많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③ 지뢰제거 프로그램

- 목 적 : 지뢰에 대한 체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줌
- 시 기 : 연중 가능
- 재료 및 시설 : 금속탐지기, 모형지뢰
- 체험 즐기기
 - 진행자는 지뢰와 연관된 마을상황을 설명함
 - 지뢰는 미리 진행자(마을주민)가 마을이나 체험 장소 주변에 숨겨둠
 - 찾아야 할 지뢰의 모형을 보여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줌
 - 참가자 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서로 지뢰를 매설하여 흥미를 유도함
 - 일정시간 내에 많은 지뢰를 제거하거나 특정 지뢰를 찾아낸 가족에게는 별도의 시상

‘지뢰를 제거하라’는 두루미평화마을의 독특한 테마로 입주 당시 황무지와 지뢰로 덮인 지역을 개간한 것을 가상하여 행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뢰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과 지뢰가 주는 피해 등을 설명하고 가상지뢰를 제거함으로써 다가올 통일 시대에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행사이다.

(5) 문화유적

① 노동당사

- 유적명칭 : 노동당사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동경 127°12'5", 북위 38°15'3")에 위치해 있으며 이 건물은 1946년도 공산 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력 동원과 모금에 의해 완공된 지상 3층의 무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당시 이 당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성금이란 명목하에 1개 리단위로 백미 200가마씩의 자금과 인력 또는 장비를 총동원시켜 1946년 초에 착공하여 완공된 연 건평 570평의 소련식 공법의 건축물이다. 이 당사 내부 구조상의 특징은 각 실마다 방음벽과 보안 유지를 위한 특수 설계로 시공되었으며 내부 구조물 축조 작업 시에는 보안을 위하여 열성당원 이외에 일반인의 작업 동원을 일절 금하였다.



노동당사 전경

1947년 초부터 이 당사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지령되는 극비사업과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연천지역 주민들의 동향 사찰은 물론, 대남공작을 주도한 공산치하에서 중부지역의 주요 업무를 관장했던 곳이다. 이 당사에서는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반공 인사들에게 무자비한 심문, 고문, 학살 등 만행을 저지른 현장이기도 하다. 당사 뒤편에 위치했던 방공호 속에서는 당시 참살 당했던 인골과 함께 만행에 사용했던 실탄과 철사 줄들이 발견되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안보 및 유적지를 발굴함으로써 후세에 남길 사적 자료를 기록 보존하고 있다. 이 고장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의 현장과 잔해, 전흔들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실증적이고 살아 있는 방공 교육의 도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장에 각종 시설과 부지 등을 정리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② 도피안사(到彼岸寺)

-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
- 지정사항 : 국보 제63호 철조비노사나불좌상, 보물 제223호 삼층석탑

도피안사는 서기 865년 통일신라시대 제48대 경문왕 5년에 도선국사가 향도 천여 명



도피안사 전경

을 거느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피안과 같은 곳에 이르렀다고 하여 화개산 현 위치에 창건된 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봉안하고 보물 제223호 삼층석탑을 조성 후 사찰이름을 도피안사(到彼岸寺)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서기 1898년 조선 광무 2년에 재화를 입어 범운스님이 재건하였고 1941년 1월 당시 주지 김의권 스님이 사찰을 개수하여 전통사찰로 이어져 왔다.

1950년 6·25전쟁으로 완전 소실된 것을 1957년 11월 육군 제15사단에서 복원한 후 군부대에서 관리하다가 1986년 사찰관리권이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1988년 대저광전과 삼성각을 개축하고 범종각, 사천왕문 등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③ 백마고지 전투지

- 소 재 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215번지 일대
- 관 리 자 : 제5보병사단
- 관리번호 : 16-2-56 “백마고지 전투전적비”의 부대시설



백마고지전승비

1952년 10월 국군 9사단이 중공군 제38군과 6·25전쟁 시기 가장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전개하던 곳이다. 1952년 10월 6일 철원 서북방 395고지(효성산 남단)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395고지를 사이에 두고 12차례 전투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UN 군의 지

원을 받은 국군 제9사단은 마침내 고지를 장악하였다. 전투과정에서 제9사단은 총 3천 4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공군은 1만 4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극심한 공중폭격과 포격으로 민둥산이 되어버린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후부터 395고지 일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

(6) 특산물 판매

① 백마고지 오대쌀

백마고지 오대 쌀은 중부 내륙지방에서 최대 곡창지대의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는 맛이 좋은 쌀이다. 철원 백마고지 오대 쌀은 일급수인 역곡천 물과 산명호 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두루미평화마을의 토양은 북쪽의 오리산에서 분화한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배수가 잘되어서 미질이 좋은 쌀이다.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철원지방의 특색인 높은 일교차로 인해 병충해 발생이 적고 유기물이 풍부한 황토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가와 맛이 좋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원 백마고지 오대 쌀을 브랜드로 만들어 고품질화를 이루고 있다. 친환경 쌀 단체 등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종합 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쌀 산업에 활력을 넣어 주고 있다.

② 백마고지 느타리버섯

- 생산방법 : 패넬 또는 블록 재배사를 통한 재배
- 특 징 : 탄력성, 색과 광택이 선명, 맛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
- 향후계획 및 전망 :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은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교육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백마고지 느타리버섯은 청정 환경에서 재배되는 버섯이다. 특히 민둥산 지역인 두루미평화마을은 역곡천물과 산명호에서 내려오는 물로 재배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정한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공해 느타리버섯인 것이다.

③ 백마고지 오이

- 생산방법 : 비가림 하우스 재배
- 특 징 : 저장성, 먹으면 아삭거리는 소리, 맛이 좋은 오이, 육질이 단단함.
다른 지역의 오이와 달리 무게가 많이 나감, 발효퇴비로 생산
- 향후계획 및 전망 : 백마고지 오이는 발효퇴비를 사용하여 맛있고 품질 좋은 유기농산물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두루미평화마을의 백마고지 오이는 주로 백침

계 오이로서 저장성이 좋고 맛이 있으며 빛깔은 연녹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철원의 높은 일교차와 휴전선 지역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물로 재배하고 있으며 또 이곳은 환경부 지정 청정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오이이다.

④ 백마고지 벌꿀

- 브랜드명 : 백마고지 벌꿀
- 생산종류 : 양봉
- 재배농가 : 7 가구
- 생산방법 : 여름철 아카시아 벌꿀
- 특 징 : 백마고지 벌꿀은 철원의 넓은 들판과 백마고지 등 야산에서 채취한 것이다. 백마고지 벌꿀은 이상적인 종합영양제로 꽃가루 특유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효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한다. 백마고지 벌꿀은 철원지역의 청정공기와 맑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에서 채취한 벌꿀로 비무장지대에서 자라는 꽃에서 채취한다. 백마고지 벌꿀은 당분이 원래 꽃에 있던 수크로오스가 꿀벌의 입에서 나오는 효소의 활동으로 전환된 과당과 포도당으로 변화된 단당류이기 때문에 흡수가 쉽고 칼로리원으로서 영양가가 높다.

⑤ 백마고지 삼지구엽초

- 분 류 : 매자나무과
- 다른이름 : 선령비, 조선음양곽, 양광엽, 엽발초, 닳꽃
- 생약명칭 : 음양곽(淫羊藿)
- 재배시기 : 개화기-4~5월, 결실기-7월
- 가공과정
 1. 삼지구엽초를 건조하여야 하는데 용매로는 물을 이용한 것과 에탄올을 이용한 방법이 있음.
 2. 삼지구엽초를 건조시 열수 추출일 경우는 90℃로 7시간 추출하여 최대 수율이 되고 에탄올 추출은 농도가 50%이며 70℃로 가열하여 7시간 추출에서 최대수율이 됨.
- 삼지구엽초 복용법
 1. 먼저 주전자나 탕약기에 물을 끓인다.

2. 구입한 삼지구엽초(음양곽)를 물에 가볍게 흔들어 행군다.
(물 2리터에 삼지구엽초 20g 정도)
3. 물이 끓으면 물에서 행구어 낸 삼지구엽초를 넣는다.
(감초나 대추 등을 첨가시 쓴 맛이 줄어듬)
4. 끓이는 시간은 10분~15분 정도가 적당하다.
(약한 불로 은근히 끓이며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도록 함)
5. 삼지구엽초(음양곽) 특유의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싫다면 꿀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음용한다.
6. 끓여낸 차는 냉장고에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끈하게 데워 먹는다.

백마고지 삼지구엽초는 삼지구엽초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공기, 화산 분출생성 된 화강암, 현무암 등이 배수가 잘 된다. 이러한 환경은 잔뿌리가 많은 구엽초의 뿌리를 썩지 않게 하고 환경부가 지정한 청정 환경 지역의 생산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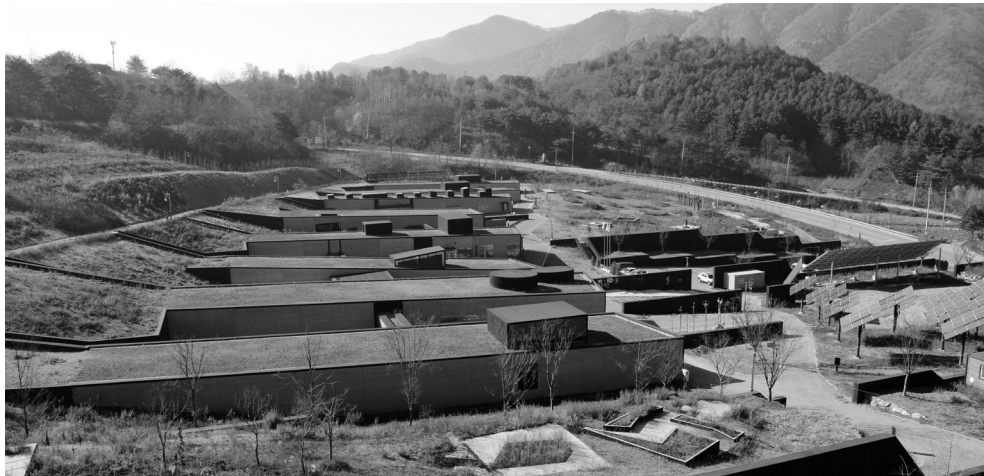
3)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전쟁, 대결, 죽음, 차단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자연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이 건립되었다.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DMZ의 평화와 생명 가치를 구체화, 생활화하고 드높이는 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²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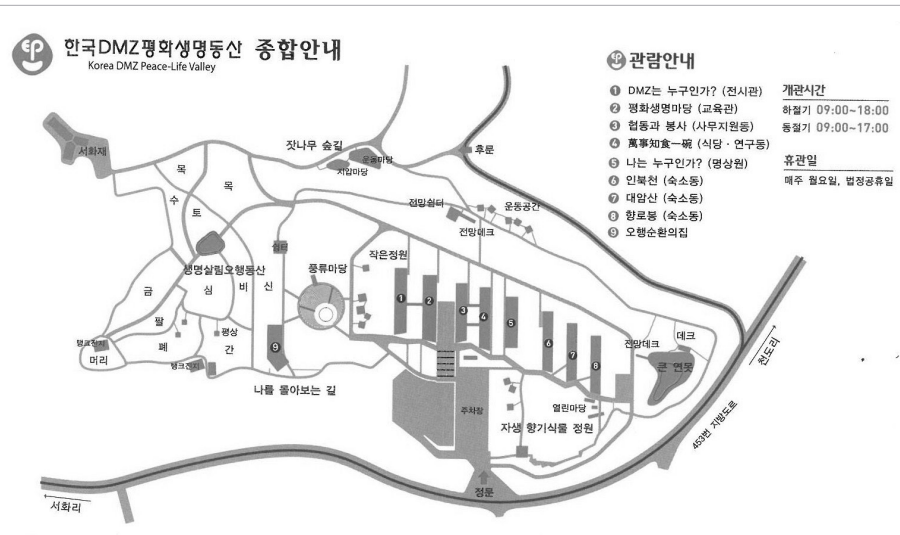
(1) 배경 및 역사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은 1998년 인제군의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기획단에서 인제군 서화면 가전지구를 답사하고 평화생태공원화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본격

288) 이 원고는 강원 철원 두루미평화마을 web 사이트인 http://www.dmzecopeace.com/html_new/index.php 나온 내용과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발행된 소책자 등을 활용하여 요약하였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전경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시설 배치도

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06년에는 인제군 서화면 점 고개 일대에 건평 997평, 대지 37,000평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이 지열과 태양열 등 친환경적으로 착공되었다. 2008년부터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의료봉사, 평화생명 체험교육, 생명살림 오행동산 조성, DMZ 생태 문화역사 전국사진 공모전²⁸⁹⁾, '서화평화 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인제 DMZ 평화생명문화제,

289)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DMZ 생태문화역사 전국사진공모전 작품집, 마르금기획, 2011, pp.1~33.

DMZ 일원의 생태계를 위해 외래 식물 제거활동, 무료 법률 상담 및 의료 봉사활동, DMZ 해설가 양성교육(심화과정) 등의 사업을 통해 주변의 농촌마을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뢰생태공원”과 “생명연구 동산”을 만들어 관광객과 주변의 농촌마을, 그리고 일반인에게 생명과 평화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2) 시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의 시설은 명상원, 전시관, 사무동, 식당, 교육동, 숙소, 야외극장, 생명살림 오행동산, 오행순환의 집, 생태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들은 조금 더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조를 지키며 생활하게 교육을 받는다.

1. 전기, 물, 그리고 모든 물자를 아낀다. 5분 목욕, 손수건 쓰기 습관을 기른다.
2. 물을 땅가트리는 활성제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든 비누를 쓴다.
3. 가공식품, 즉석식품, 튀김음식, 그리고 고기류를 덜 쓰고 커피대신 옥수수차를 마신다.
4. 휴대전화, 컴퓨터, TV는 쓰지 않는다.
5. 일찍 자고(밤10시 이전), 일찍 일어나는(아침 5시경) 자연의 흐름과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전시관은 6·25전쟁으로 인해 생긴 DMZ 일원의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험하고,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의 소주제는 1. 아픈 상처를 치유하다, 2. 평화·생명이 숨 쉬는 중동부산악지역, 3. 푸른 숲길을 따라, 4.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땅, 5. 생태계의 순환고리, 6. 가치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나누어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 6·25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상처를 치유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의 보고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살림 오행동산은 머리(頭), 팔, 폐(肺), 간(肝), 심(心), 비(脾)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통로이고 폐는 호흡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는 곳이다. 간은 몸에 있는 독소를 분해하고 심(心)은 활동과 휴식을 때에 맞게 조절한다. 비는 음식을 먹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신(腎)은 정(精)을 보존한다. 오행동산에는 몸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구분되어 있다. 목(木)은 중풍, 자존심, 분노와 관계되어 있고 화(火)는 신경증, 봉사, 기쁨과 관계되어 있다. 토(土)는

위장병, 화합, 생각을 관장하며, 금(金)은 폐병, 결단, 슬픔과 관계된다. 수(水)는 부종, 지혜, 공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산에는 오행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물들을 조성하여 놓았다.²⁹⁰⁾

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뿐만 아니라 지뢰 생태공원은 서화면 가전리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인북천 우안습지 1,000,000㎡에 생태탐방시설 4,664㎡를 조성하였다. 주요시설로는 생태탐방로, 생태교육장 등으로 쓰는 관찰 데크를 조성하였고 전체지역이 완전히 보존된 지뢰생태공원이다. 또한 생명 연구동산은 서화면 가전리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발농사 지역에 297,522㎡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식물 중 수집, 재배 등 공간조성, 특히 미래의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다가올 제4의 물결인 생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반도 식물종의 최대 확보와 연구기지로 조성하고 있다.

(3) 교육 · 체험 프로그램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DMZ 일원의 마을주민과 군부대 현장교육, 시민단체와 기업의 임·직원,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대중교육과 지도자 교육, 지구촌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생태 체험은 과거 농경지가 자연천이 된 가전리 습지,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가 다양한 임북천, 사향노루와 산양이 살고 있는 금강산 향로봉, 4,200년 전 태고적 역사를 간직한 대암산 용늪 등 DMZ 일원의 생태계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통선 현장체험으로는 을지전망대, 제4땅굴, 가철봉 OP, 편지봉 민통선 마을 등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된다. 농촌체험은 DMZ 일원 최전방 농촌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농사일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 명상, 노동,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명상원에서는 국선도와 단전 호흡 강의를 통해 건강한 삶을 교육하고 있다.²⁹¹⁾ 또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은 주변의 문화유적과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제를 중심으로 한 축제체험은 빙어축제, DMZ평화생명문화제, 용대리 황태축제, 미산리 고로쇠축제, 진동리 산나물축제, 내설악강변축제, 만해축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290)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 살림 오행동산 해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02호, 2010, pp.1~23.
291)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국선도와 단전 호흡의 이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04호, 2010, pp.1~30.



민주주의 국제학술대회 후 기념촬영

주변의 월학리 냇강 마을은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지로 대암산 고로쇠 수액과 토종꿀, 송이, 산나물 등이 유명하다. 서화리의 파프리카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은 곰치, 마, 오미자, 송이버섯, 인진쑥, 쌀, 황태, 토종꿀 등이 있어 음식체험 프로그램의 자원이 되고 있다.

(4) 주변의 문화자원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주변에는 많은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그리고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인제지역에 설악산 대청봉, 대암산 용늪,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계곡, 내린천계곡, 방동약수, 백담사, 합강정이 있다. 또한 주변에 방태산자연휴양림, 용대자연휴양림, 하추자연휴양림, 곰배령 등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 일대에는 산촌민속박물관, 목공예갤러리, 백담사 만해마을, DMZ 대암산 생태학교, 내설악 예술인촌 등이 분포되어 있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과 같은 기능의 기관들이 자연환경과 생명의 교육과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① 대암산

대암산은 강원도 서화면 북면과 양구군 동면 해안면에 있는 산으로 용늪과 심적산림습원이 있다. 용늪은 해발 1,280m에 위치한 고층습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심적산림습원은 대암산 자락의 해발 700m에 위치해 있는데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습지지역 내에는 큰 물길을 따라서 풀이 밀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② 금강산 향로봉

향로봉은 강원 인제군, 고성군의 경계에 있는 산(높이 1,293m)이다.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며 신라시대에는 가리라봉(迦里羅峰)이라 불렀다. 한반도의 3대 광역생태축 가운데 남북의 생태축인 비무장지대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역은 1973년 7월 10일 천연기념물 제247호인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약 83.3km²의 면적이 지정되었고 2008년 10월 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되었다. 향로봉 정상은 건목과 초지가, 능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숲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휴식년제를 두고 야생꿀, 송이, 산나물 등을 채취한다. 고로쇠 나무의 수액은 최소 15년에서 16년을 주기로 채취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²⁹²⁾

③ 자연이 만든 습지 가전리

인제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전리는 강원도 중동부의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으며 동으로는 향로봉(1298m), 서로는 가칠봉(1242m)사이의 DMZ 남방철책선과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소양강 최상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다. 이 지역에서 백두대간 중 가장 낮은 삼재령을 넘어 동쪽으로 외금강, 북쪽으로 내금강으로 통한다. 이 지역은 6·25전쟁이후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습지로 복원되었고 식물과 동물의 천국이 되었다.

④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해발 1,049m에 위치한 을지전망대는 양구 동북방 27km,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m

292)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생명·통일의 길-통일신문명의 건설, 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0 통일교육자료집, 2010, pp.42~45.

남쪽지점 해안분지를 이루고 있는 가칠봉의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전망대에서는 금강산 비로봉, 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전망대 근처에 위치한 제4땅굴은 1978년 제3땅굴이 발견된 후 12년만인 1990년에 양구 동북방 26km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되었다. 군사분계선에서 1,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4땅굴은 너비 1.7m, 높이 1.7m, 깊이 지하 145m, 길이 2.1km에 달한다.

4)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는 오염되지 않은 생태환경을 토대로 조성한 Eco-Museum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영월군은 신활력 사업으로 2005년부터 박물관 고을을 육성하기 시작해 2008년 12월에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되었다. 영월 박물관 고을은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147개 특구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우수 특구가 되었다.

영월박물관협회는 영월군 소재 박물관, 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월박물관협회에서는 협회 박물관·미술관의 진흥발전을 위한 지원, 정보교류 및 홍보,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 박물관·미술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교육, 강원도지사(시장·군수 포함)의 위탁 사무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영월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박물관의 문화콘텐츠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월의 테마박물관을 지원하고 있다.²⁹³⁾

(1) 배경 및 역사

영월군은 관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월군의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 강조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산업 조류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영월군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의 기본 전략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

293) 이 글은 http://www.ywmuseum.com/home/page/sub1/01_01_02.jsp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물관을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신활력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는데 있다. 또한 인재 육성·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테마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상품 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치를 기획·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프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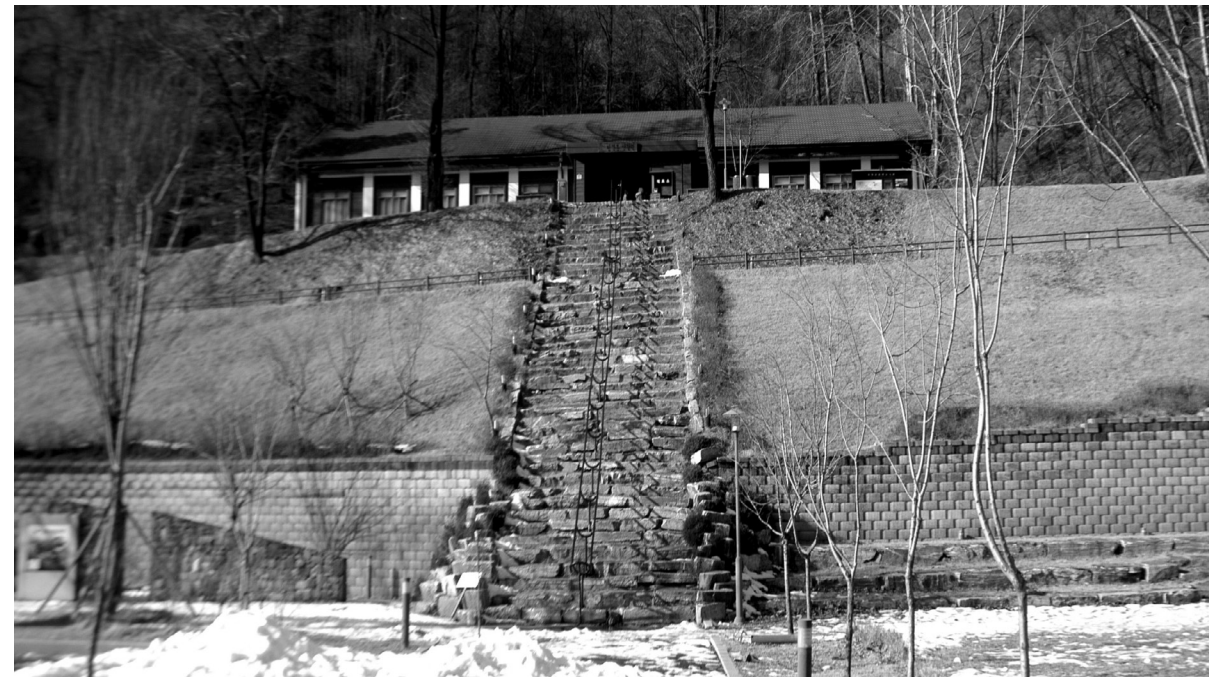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영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교육 및 문화지역으로서의 영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성공적인 박물관 고을 육성을 위해서는 각 박물관이 위치한 마을과의 공동 번영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호흡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기념품 개발이나 박물관 브랜드의 구체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월의 박물관 고을 특구에는 조선민화박물관(2000. 07. 29.), 국제현대미술관(2001. 10. 13), 목산미술박물관(2002. 05. 05), 영월곤충박물관(2002. 05. 04), 호야지리박물관(2007. 12. 08), 영월화석박물관(2007. 12. 15), 영월박물관협회(2008. 10. 28 제1대 이대암 회장 취임), 호안다구박물관(2008. 11. 08), 쾌연재도자미술관(2009. 05. 12), 세계민속악기박물관(2009. 05. 19),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2009. 11. 02), 영월종교미술박물관(2010. 04. 10), 영월근현대생활사박물관(2012. 04. 28), 영월초등교육박물관(2012. 04. 28),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2012. 05. 24), 인도미술박물관(2012. 05. 26)과 같은 박물관의 활동으로 이루어 졌다.

이 이외에도 영월에는 강원도 탄광문화체험촌, 영월 동강생태공원, 별마로천문대, 난고 김삿갓 문화관, 영월 동굴 생태관, 고씨동굴 등 자연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강원도 탄광문화촌

영월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415번 지방도로를 따라 평창 미탄면으로 가다보면 1930년~1970년대에 석탄을 캐던 탄광마을인 마차리가 나온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대 옛 영월광업소(마차탄광) 터에 조성된 탄광문화촌(88,566㎡)은 생활관(444.81㎡), 갱도 체험관 100m, 야외전시·공연장, 위령탑, 편의시설 등을 갖춰 광산촌의 생활모습과 광부, 가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재현했다. 관람객이 직접 도보로 지하갱도를 탐험하면서 다



강원도 탄광생활관 전경

양한 영상매체와 작동모형을 통하여 광부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²⁹⁴⁾

영월 광업소는 1950년 11월 대한석탄공사 창립으로 조선전력주식회사에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다. 1956년 이 지역의 석탄을 실어내 가려고 충청북도 제천에서 영월까지 잇는 영월선이 부설되었다. 영월선이 깔리자 영월의 석탄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 도시로 쉽게 팔려 나갈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게 된다. 영월 광업소에서 생산된 석탄은 영월화력발전소로 운반되었다. 1966년도의 영월 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은 307,254톤이며 영월화력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은 353,034톤으로 영월 광업소에 생산된 석탄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었다.

① 전시개요

강원도 탄광문화촌을 통해 탄광촌 거리를 보며 옛 광부들의 삶을 느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의 탄광촌 마차골 방문객들을 위한 환영의 장에는 상징조

294) <http://blog.daum.net/sbs1234/5692647>



탄광 생활관 내부 전시

② 탄광생활관

탄광생활관에는 배급소, 마차상회, 이발관, 선술집, 양조장, 뽕튀기아저씨 등이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60년대 초등학교 교실을 그대로 재현한 영상 자료실이 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교실에 배치된 의자에 앉아 「우리나라 석탄 산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된 영상수업을 받는다. 영상 관람이 끝나면 학교 내부 공간에 패널로 연출된 석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실 내부 창문과 뒷 벽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석탄에 대한 자료를 패널과 광물 자료를 통해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석탄 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학교 내부에는 관련 소품을 배치하여 60년대 말 마차 초등학교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차리의 탄광촌과 버스정류장, 그리고 영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묘사하면서 전시를 마무리 하고 있다. 영월 광업소에서 생산된 탄은 삭도 시설을 통해 영월 화력발전소로 직행되었다. 1톤의 무게의 삭도가 움직일 때마다 탄을 싣고 지나다녔다. 돌아 올 때는 물건까지 실어 날랐던 영월의 상징물이었던 삭도의 이동과정을 영상과 모형이 서로 연통되는 2D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여 단순 설명적인 정보전달 형식에서 벗어난 시각적 효과를 자극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하였다. 퇴관 전에 만나는 연출공간으로 관람객의 휴게와 편의를 돕고 휴식을 취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게

형물과 권양기 롤러가 설치되어 있다. 탄광문화 교육의 장에는 탄광촌의 생활 모습을 재조명한 마차리 탄광 생활관이 ECO 마차골 즐길의 장에는 검은 탄광촌에서 푸른 탄광촌으로 변화된 자연 및 인문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탄광정비 전시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채탄현장 체험의 장에는 광부들의 애환과 땀이 서린 광산 갱도와 작업과정에 대한 마차리 탄광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²⁹⁵⁾

295) <http://www.coaltour.com/hb/machari>

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월 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과거의 영월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퇴관부 마지막 전시공간으로서 탄광으로 인해 풍요로웠던 광산촌의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고 점차 잊혀져만 가는 광산촌을 인식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영월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LCD 모니터에서는 과거 탄광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구성하고 관람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터치스크린 형태에 모니터를 통해 연출하였다.

③ 탄광체험관

가. 갱도사무실

갱도사무실은 갱도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주사무실로서, 갱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작업 공정을 파악하고 지원장비, 지원인력 등을 통제하는 관리공간이다. 갱도사무실은 갱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갱장과 수하의 계장, 감독이 갱도 업무에 대해 작업을 지시하고 전달받는 유일한 사무공간이다. 갱도사무실에는 안전 수칙과 보안규칙, 보안일지, 작업일지 등의 작업관련 비품과 구급장비, 의약장비 등의 안전비품, 그리고 광산사무실과 연결되는 인터폰 등이 있다.

나. 광부작업복체험

갱도 내 작업을 위해서 안전모와 작업복은 광부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이다. 관람전 관람객들이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한다.

다. 작업장 가는 길

지하갱도로 진입하는 효과를 영상과 효과음을 통해 작업을 마친 광부들이 나오는 화면을 상영하여, 광부작업조의 교대가 이루어진다.

라. 굴진, 발파, 동발설치

갱도를 만들어가면서 세우는 동발(지주라고도 함)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세우는데, 그 규격은 개발초기부터 지금까지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는 추세이다. 1980년대에는 넓이가 3m이던 것이 1990년대 들어 너비 3m30cm, 높이 2m50cm, 앞 동발과의 거리는 80cm로 넓어졌다. 막장에서는 동발 지주목을 세울 때 나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운다. 즉 나무 윗부분이 아래를 향하고, 뿌리 부분이 위를 향하게 세운다. 하중을 받는 부분이 측면보다는 상부에서 내려누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 밑 부분을 위로 하게 하여 힘을 받아도 나무가 잘 안 갈라지도록 했다.

마. 광부의 얼굴

검게 탄이 묻은 얼굴 속에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는 광부의 모습, 고된 노동 속에서 한숨을 돌리는 모습 등 광부의 갱도 속의 삶이 잘 표현된 사진을 대형 이미지 그래픽 패널을 통해 전시하였다.

바. 막장작업장

채탄은 탄층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과정으로 석탄의 부존 여건에 따라 채취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 석탄층은 그 부존 상태가 불량하여 외국과 같이 대형 시설과 장비에 의한 대량 생산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채탄방식을 적용하였다.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채탄법을 크게 분류하면, 탄층 내에 승갱도를 진행시켜 그 상부한계 지점부터 석탄을 채취하여 하부로 점차 내려오는 승채탄과 좌우 수평방향으로 갱도를 진행시켜 그 한계 지점부터 후퇴하면서 석탄을 채취하는 연층채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스검침은 대기 중의 공기와 달리 광산 갱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폭발성인 메탄가스(CH₄), 유독성 가스인 일산화탄소(CO) 등이 혼합되어 있어 갱내 작업자들은 각종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측정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 일일광부 체험

막장(채탄) 작업장 관람을 끝낸 후 관람객들이 갱도 내 광부들의 작업을 일부분 체험할 수 있는 동발매기 코너이다.

④ 야외전시관

가. 권양기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重量物)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이다. 사갱이나 수갱에서 석탄이나 기차재, 인원 등의 운반을 위한 견인장치로 로프 끝에 광차 등을 연결시키고 로프를 드럼에 감아 끌어올린다. 광산에서는 와이어 로프에 의한 운반이 많다. 로프는 가는 소선인 철사를 꼬아서 자

승을 만들고 다시 이 자승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다.

나. 압축기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하는 채탄 굴진막장에 동력을 공급하고 채탄막장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는 압축공기기계이다.

다. 인차

작업장이 장거리일 때 광부를 작업장 가까이 수송하는 차로서 운행되는 갱도의 형태에 따라 수평갱 인차, 사갱 인차로 분류된다.

라. 광차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이나 석탄을 운반하는 욱기로 적재량은 1톤이다.

마. 후황기(大·小)

갱내 공기는 탄층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발파에 의한 연기, 분진 등으로 인해 신선하지 못하다. 후황기는 좋지 못한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넣어주는 장비이다.

바. 티플러, 광차, 레일

광차에 있는 석탄을 쏟아내는 장치로 광차를 티플러 속으로 밀어 넣은 후 회전을 하여 석탄을 쏟아내는 장치이다. 광차의 용량에 따라 1톤용, 2톤용, 3톤용이 있다.²⁹⁶⁾

이 영월탄광문화촌 인근에는 영월술빛마을, 영월삼굿마을, 선령약수터, 연하폭포, 연하동굴 등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자원은 탄광문화촌과 함께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3) 영월 동강생태공원

영월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동강생태정보센터만 개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다. 수려한 자

296) <http://www.ywmuseum.com/section/tankwang/page/index.jsp>



영월동강생태공원 전경

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을 비롯해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동강은 태고적 원시의 상태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구불구불 뱀 모양의 사행천에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동굴과 동강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명산들까지 천혜의 비경, 그대로를 담아 흐르는 강이다. 영월 동강 생태관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영월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문화적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다.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의 보전과 탐방객의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태·문화적 생명력을 지켜가기 위해 건립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서 동강생태정보 센터, 곤충산업 육성지원 센터, 동강테마 식물원이 있다. 동강에는 조류 총92종, 어류 총32종, 곤충 총1,514종, 식물 총956종, 동굴 총71개소, 포유류 총41종, 파충류 총16종, 양서류 총9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동강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학습을 통해 동강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적 문화적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교육 센터이다. 동강생태정보센터는 동강의 지형, 지질, 동강의 소리, 물고기, 새 등의 전시관과 3D 가상래프팅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²⁹⁷⁾

(4) 별마로천문대

별마로천문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번지 봉래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297) <http://www.donggang-ecopar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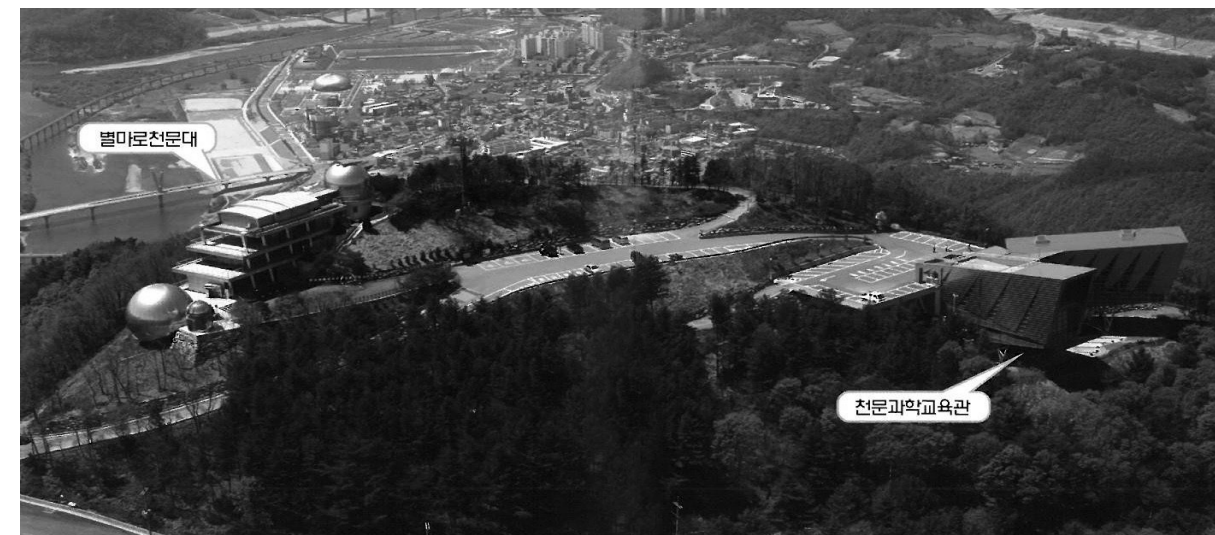
시민천문대 최상의 관측조건인 해발 799.8m에 자리하고 있다. 지름 80cm 주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달이나 행성, 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에는 활공장이 있어 넓은 시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영월읍내 야경도 천체관측과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별마로천문대에는 직경 80cm 주망원경을 비롯하여 보조망원경 10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천문전시실과 시청각 교재실, 주관측실 및 보조관측실이 있어서 신비로운 우주세계를 보여준다. 층 로비에는 고인의 우주관, 태양모형과 푸코진자, 행성모형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키오스크 검색을 통해 천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열람이 가능하다.²⁹⁸⁾

① 천체투영실

천체투영실에 설치되어있는 투영기는 8.3m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으며 별자리 찾는 법이나 관련 신화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

② 2층 시청각실

2층 시청각실에서는 우주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우주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고 깊게 해 주고 있다.



298) <http://www.yao.or.kr/>

③ 3층 전망대 및 휴게실

3층 전망대에서는 주위 풍경을 넓은 시야로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는 동쪽을 향해 있으며 정면에 태백산을 볼 수 있고 남쪽으로는 소백산, 북쪽으로는 백덕산을 볼 수 있다. 3층 복도에는 천문학 발달에 영향을 크게 준 과학자를 소개하고 있다.

④ 보조관측실

보조관측실에는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 등 다양한 망원경이 있어서 행성, 은하, 성운, 성단, 달표면, 태양의 흑점 등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다. 낮에 방문하시면 태양필터를 이용하여 흑점을 볼 수 있고 밤에는 달이나 행성, 별을 감상할 수 있다.

⑤ 주관측실

주관측실에는 800mm 리치크레티앙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발 800m에 설치된 8m 원형 돔 안에서 성운, 성단, 은하 등 우주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카메라와 TV가 설치되어 있어 달의 표면을 자세히 볼 수 있다.

(5) 난고김삿갓문화관



난고 김삿갓 문화관 야외공연 전시장

강원 영월군 하동면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와석리 913)에 위치해 있는 김삿갓문화관은 시비와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김삿갓의 묘와 생가가 있다. 김삿갓 유적지는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준령의 북단과 남단에 위치하며,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3도 접경지역으로 산맥의 형상이 노루가 엮드려 있는 모습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불려오고 있다. 또한 김삿갓 유적지내에 흐르는 ‘곡동천’은 여름철에는 유리알처럼 맑고 풍부한 수량이 기암괴석 사이로 넘쳐흐르고 가을에는 형언각색 단풍으로 인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는 신비로운 곳이다.



난고 김삿갓 박물관 전경

난고 김병연은 안동김씨 시조인 고려 개국공신 삼중대광태사선생의 후예이고 휴암공파계 제24대 손이다. 1807년(순조 7년)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에서 아버지 안근과 어머니 함평이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병연(炳淵), 자는 성심(成深), 호는 난고(蘭皐), 별호는 김삿갓 또는 김립(金笠)이다. 그는 영월 동현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 시제 “논정가산충절사탄김익순죄통우천”에 대하여 가산 군수 정씨를 예찬하고 선천 부사이자 방어사이던 조부 김익순을 호되게 비판하는 글을 지어 장원을 하였다. 그러나 후일 모친으로부터 집안 내력을 듣고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감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어둔으로 옮겨 은둔생활을 하였으며 22세 때 아들 학균을 낳은 뒤 상경하여 이름을 김란, 자를 이명, 호를 지상으로 바꾸고 안응수의 문객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였다. 24세가 되던 해 권문에 기대어 출세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귀가하여 형 병하에게 아들 학균을 입양시키고 그해 차남 익균을 얻었지만 처자식을 남겨둔 채 방랑길에 올랐다. 그때부터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책하며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짊고 다녔으므로 김삿갓 또는 김립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선생은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를 방랑하면서 서민들의 애환과 양반들의 잘못된 생활상을 시로 읊조렸으며, 도산서원 아랫마을과 황해도 곡산에서는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차남 익균이 여러 번 찾아와 귀가하자는 간청을 끝내 물리치고 54세 때에는 지리산 등을 방랑하다 3년 만에 쇠약한 몸으로 선비의

집에 다시 돌아와 1863년(철종14년) 3월 29일(57세) 별세하여 마을 동편 산록에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차남 익균이 지금의 묘인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에 이장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이응수(李應洙)에 의해 김립시집(金笠詩集)이 간행되었고, 묘역 주변에는 김삿갓의 문학과 사상을 기리기 위한 난고 김삿갓 문학관과 이응수 선생 공적비가 있다. 난고 김삿갓 문학관에서는 난고 김병연의 생애와 발자취를 좇아 일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선생의 김삿갓 연구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김삿갓 관련 자료를 상영하고 있다. 난고 김삿갓 문학관은 강원도 시책 사업인 “강원의 얼 선양 사업”의 하나로 2003년 10월 개관했다. 김삿갓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²⁹⁹⁾

(6) 영월동굴생태관

영월동굴생태관은 동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할 수 있는 자료, 보여주고 싶은 자료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알차고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 시설이다. 전시품목과 내용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나열식 보다 문답식으로 풀어나가며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다. 동굴학은 과학과 인문학 외에도 스포츠까지 포함하는 종합 학문이고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다. 희망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준에 맞는 동굴을 직접 탐험하면서 동굴과 자연에 대해 보다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³⁰⁰⁾

영월 동굴 생태관은 각 분야 동굴 전문가들의 자료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계되었다. 지하1층은 전시관과 동굴연구소, 회의실을 갖추고 있고 지하 1, 2층 전시관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석회는 누가 만드나?”, “숨어있는 동굴생물”, “어두워도 부딪치지 않아”, “박쥐에 대한 진실”, “신비한 동굴탐험” 등 1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관의 전시물 정보들은 문답식으로 관람객이 직접 문제를 풀어가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299) <http://cafe.daum.net>

300) <http://www.ywmuseum.com/section/donggul/page/>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전경

지하1층에는 동굴탐험에 필요한 장비, 착용법 등을 알 수 있는 거꾸로 탐험대 전시와 지금의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동굴 길잡이”, “반갑다!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다채롭게 변화하는 폼등이, 옆새우, 박쥐, 노래기 등 동굴생물의 다양하고 특징 있는 움직임이 영상이미지를 통해 상영된다. “거꾸로 세계를 만나자”파트에서는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수억 년 전 지금의 석회암을 만든 생물들을 알아보고 암석화 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지대의 생성과정과 영월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암석을 관찰할 수 있다.

거꾸로 탐험대는 동굴탐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착용방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동굴 탐사 관련 장비를 실물전시하고 있다. 동굴의 나이는 “나도 동굴탐험가”, “석회는 누가 만드나”, “돌이 녹는다”, “동굴들의 비밀”, “다시 돌을 만든다”에서 다루었다. 숨어있는 동굴생물은 수억 년 전 지금의 석회암을 만든 생물을 알아보고 암석화되는 과정을 통해 석회암 형성과정을 설명한다. 영월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암석을 전시, 관찰할 수 있다. “영월의 다양한 동굴”, “복잡한 고씨동굴”, “신나는 거꾸로 세계”, “CAVE EXPLORER(4D 라이더), 동굴탐험의 입체 영상을 통해 신나는 동굴탐험을 경험하세요”, “명에동굴수호자” 등의 주제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관람객이 고씨동굴을 비롯한 영월지역 동굴의 배경을 합성크로마키 촬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촬영할 수 있다.



영월 동굴 생태관 배부 전시 전경

지하2층에는 포유류이면서도 비행이 가능한 박쥐를 비롯하여 동굴에 서식하는 동굴 생물들을 영상, 표본 등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제2전시실과 실제 동굴생물을 관찰한 후 고씨동굴의 비공개 구간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3전시실이 있다. 거꾸로 사는 생물 박쥐에서 박쥐의 생김새, 어두운 동굴에서 사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초음파

등 생물학적 특성을 영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영월지역의 동굴에 설치한 무인적 외선 카메라를 통해 박쥐의 생활사를 실시간과 편집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날아다니는 포유류”, “재미있는 박쥐 얼굴”, “박쥐, 무얼 먹고 살까?”, “동면에서 깨어나기”, “어두워도 부딪히지 않아”, “박쥐에 관한 진실”, “박쥐의 24시 등 대야굴에 서식하는 박쥐의 모습을 5대의 CCTV를 통해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동굴에 서식하는 동굴생물들이 동굴에 들어오기까지의 경로와 어둠 속에서 퇴화된 시각대신 발달한 동굴생물의 감각기관에 대해 소개한다. “동굴에 왜왔니?”, “너들이가 되어보자!”, “빛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동굴생물과의 조우”, “동굴환경의 다양성”, “동굴생물의 서로 다른 생활”, “영월동굴의 정복자들”, “고씨동굴의 먹이사슬” 등의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다. 동굴 탐험 회원을 모집하여 동굴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영월동굴 생태관에서는 동굴관련 특별전, 동굴탐험, 지질, 영월의 동굴, 박쥐 등 동굴 생물과 생태계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7) 영월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영월 아프리카미술관은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의 생활, 의식, 신앙, 축제 등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문화상품, 조각, 그림, 생활도구, 장신구 등 현대미술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한 아프리카대사관이 출품한 문화전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인들의 관념세계를 표현한 인물상, 조각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미술을 이해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미술의 소재, 제작기법, 미술적 특징 등이 현대 미술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관(1층)에서는 아프리카 부족의 전통조각과 현대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프리카 고미술과 연관될 수 있는 근현대작품을 비교 전시, 아프리카 미술의 진수를 찾아 볼 수 있다. 기획전시관(2층)에서는 북아프리카체험전 “마그레브”- KOICA 지구체험관 이동 전시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북서부 지역의 마그레브(Maghreb)는 “해가 지는 서쪽”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사하라사막과 지중해, 아틀라스 산맥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전시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개국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를 소개한다. 마그레브의 삶의 터전인 사하라의 아름다움과 사막의 확산 문제 등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³⁰¹⁾



301) http://www.aamy.kr/museum/museum_02.php

5) 맺음말

이상으로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평화마을과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 영월 박물관 고을 특구의 문화자원 환경과 활용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평화마을은 정부에서 국방력 강화와 식량증산의 목적으로 방공정신이 투철한 재향군인 150명을 1967년 2월 가입주시킴으로써 두루미평화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어 47년이 지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척사대회, 입주기념식,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 떡메치기, 음식 경연대회, 널뛰기, 투호, 팔씨름 등 전통 민속놀이를 발전 계승시키고 있다.

이 철원 두루미평화마을은 마을 정보센터에서 인터넷교육 등을 통한 정보이용 및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이외에 대마교회, 두루미 평화관과 체험관, 묘장초등학교, 대마보건진료소, 경로당, 노인대학 등의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정보화 마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루미 평화마을에서는 희망의 숲대 만들기, 두루미, 독수리 등 많은 철새들의 생태를 고성능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지뢰에 대한 체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생각을 불러 넣어 주고 가상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두루미 마을의 인근의 문화유적으로 노동당사, 도피안사, 백마고지 전투지 등을 활용하여 유적답사 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마을의 특산품인 백마고지 오대쌀, 느타리버섯, 오이, 벌꿀, 삼지구엽초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자연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설립된 “한국DMZ평화생명 교육마을”은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보존하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바람직한 발전의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의 시설은 명상원, 전시관, 사무동, 식당, 교육동, 숙소, 야외극장, 생명살림 오행동산, 오행순환의 집, 생태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에 맞도록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변의 문화유적과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생명과 평화 등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국DMZ평화생명교육마을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DMZ 일원의 주민과 군부대 현장교육, 시민단체와 기업 임·직원,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대중교육과 지도자 교육, 지구촌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 농경지가 자연천이 된 가전리 습지,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가 다양한 임복천, 사향노루와 산양이 살고 있는 금강산 향로봉,

4,200년 전 태고적 역사를 간직한 대암산 용늪 등 DMZ 일원의 생태계 등이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통선 현장체험으로 을지전망대, 제4땅굴, 가칠봉 OP, 펀치볼 민통선 마을 등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자원이다. 농촌 체험은 DMZ 일원 최전방 농촌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다.

영월군의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신활력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는데 있다. 또한 인재 육성·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테마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 상품 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프트 경쟁력 향상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광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월의 박물관 고을 특구에 있는 박물관 중에 강원도 탄광문화체험촌, 영월 동강생태공원, 별마로천문대, 난고 김삿갓 문화관, 영월 동굴 생태관, 고씨동굴 등 자연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문화자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 대성동 마을도 이 두 마을을 모델로 삼아 대성동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을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